

애니

www.airforce.go.kr

행정간행물

25090 - 33246 - 44 - 98008



2002. 6 제288호

공군본부

2002. 6. 제288호 목차



www.airforce.go.kr

지휘봉		3
공군은 지금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7
칼럼	월드컵, 세계 일류국가로 가는 기회	8
기획특집/세계전투기 사업, 아예부터 싸야!	최강의 전투력, F-15K는 어떤 항공기인가?	11
	차기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16
	F-15K 후속군수지원 Q&A	18
Air Power	정밀공중공격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23
호국보훈의 달 기획연재	공군중군문인단사(1)	26
Zoom In	정보과학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THINK TANK	30
추억의 사진 한장	축구시합을 마치고	32
I Love Air Force	3대를 이은 공군사랑	33
	공군이 선사한 선물 / 내일의 나는 공군조종사	34
	공군 아저씨, 언니들 힘내세요	35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그리고 공군	36
노래의 날개 위에	음악에 목숨을 걸고	37
문화마당	미술치료, 그림 보며 마음의 病 고친다	38
AIR@ARTS	재즈와 항공, 그리고 글렌 밀러(Glenn Miller)	40
기지극장	거미남자의 키스, 스파이더맨의 매력	43
마음으로 읽는 글	축구공 하나로 만나는 세상	44
지구촌 여행	대만의 마조축제	46
기상전망대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에	49
마음의 양식	뿔뿔한 도리	50
Green Air Force	작은 것이 아름답다	51
비상출격	디에고 가르시아의 하늘(1)	52
공군이 변한다	클릭 한번으로 인사상담 해결!	55
가족문예	대한민국 공군 대위, 우리 남편 파이팅!	56
장병문예	鵬程萬里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	58
	중국 민항기 사고현장에 대한 짧은 기록	60
	리더십 이야기	62
이달의 문화인물	조지훈(趙芝薰)	63
이달의 호국인물	육군중령 김풍익(金豊益)	63
이달의 독립인물	민종식(閔宗植)	63
항공계 소식	월드컵 대비 항공보안 대폭 강화 外 3건	64
퀴즈로! 퍼즐로!	월드컵 특집	65
알립니다	공군사관생도 모집요강	66
문화가 소식	한국 근대화 100선(1900~1960)展 外 3건	67

발행일자/2002년 6월 2일(통권 제288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234, 042-552-6234, 편집·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간접 신고/대공 상담은 국군 기무부대로... ☎ 080-777-1113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21세기는 강한 항공우주력을 보유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반드시 도약, 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분 각자가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면학과 탐구활동에 부지런히 힘써주기를 각별히 당부하며, 오늘의 대회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군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도움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모형에 불과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날리는 항공기가,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 최고수준의 국산 전투기와 우주선으로 발전하여, 저 푸른 조국의 하늘과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를 종횡무진 누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24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대회사 중에서

R O K





- 1 제24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개최
- 2 제20전투비행단 순시 후 지휘비행을 실시한 김대욱 참모총장
- 3 02-1차 고등 비행교육훈련과정 수료식 거행
- 4 파키스탄 국방대 방한단 공군본부 방문
- 5 정보화 책임관 협의회를 주재한 천기광 참모차장
- 6 공군대학, 제8회 항공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 7 공군본부 마라톤 동호회(청마회), 제2회 계룡대 단축 마라톤대회 개최
- 8 제9회 참모총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 9 2002년도 공중전투지원 평가대회 실시
- 10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3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R.O.K. Air Force

- 11 제18전투비행단, F-5 항공기 주기검사 700회 출고 기념행사 실시
- 12 제11전투비행단, 한·미 장병 친선축구대회 실시
- 13 작전사령부, 미 공군 장병 대상 전통문화 체험행사 실시
- 14 제3훈련비행단, 주한 외국 무관단 부대견학행사 실시
- 15 군수사령부, 항공부품 국산화 견본 전시회 개최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띠는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 1 국방부 출입기자단 가족초청 부대견학행사를 실시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 2 월드컵 지원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 3 구제역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17전투비행단 화생방 지원대
- 4 장애우·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위문공연을 실시한 공군 군악대
- 5 장애우들과 함께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방문한 제20전투비행단



월드컵, 세계 일류국가로 가는 기회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 정몽준

『월간 공군』을 통하여 공군장병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젊은 시절, ROTC 육군장교로 복무했으며, 장교로 복무한 경험은 아직도 보람과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1988년 국회의원에 첫 당선된 후 나는 국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국회 국방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공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국정감사차 공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공군의 넘치는 자신감과 사기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사이자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2002 한일 월드컵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월드컵은 단일종목의 이벤트지만 세계적 관심과 열기는 올림픽을 훨씬 능가한다. 월드컵은 전쟁과도 인연이 깊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카리브-북미 지역 예선전에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게임의 승패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른바 '축구전쟁'이 벌어져 두 나라의 전투기가 국경에서 불을 뿜었다. UN의 긴급 중재로 전쟁은 5일 만에 끝났지만 양국의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었다. 양국의 평화협정은 10년 후인 1980년에 체결됐는데 조약체결 후 가진 친선축구대회에서 또다시 난투극이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축구는 평화에도 기여했다. 1차 세계대전의 비공식 휴전이 실현된 1914년 크리스마스에 전선에서 대치하던 영국과 독일이 축구로 대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전쟁 중에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전이 개최되었고, 중립국에서는 국제경기도 열렸다. 우리만 해도 6·25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군부대에서 축구대회를 열었으며, UN 참전국 군인이 참가한 국제 친선대회를 갖기도 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반쪽대회가 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 LA 올림픽 틈새에서 열렸는데, 그때에도 109개국이 참가신청을 하여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임을 입증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행사'는 2차대전'이라고 했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독일이 후퇴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상제리제광장에 쏟아져 나온 사람은 200만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팀이 우승했을 때 모인 파리시민은 무려 500만명이 넘었다고 하니 2차대전보다 월드컵이 더 큰 이벤트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월드컵은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경을 넘는 우호와 친선을 촉진시켜 왔다. 이번 월드컵 또한 인류 누구나 바라는 세계의 평화, 전 인류의 화합이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테러와 응징으로 점철되어 버린 지난해를 마감하고 지구촌 한 가족 시대를 다시금 구현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월드컵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국민적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지난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지켜본 연인원은 320억 명으로 2년 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의 260억 명보다 60억이 더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월드컵은 축구 단일종목인데도 올림픽 전 종목을 합친 시청자수보다 훨씬 더 많으며, 미국인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미식축구 슈퍼볼, 야구 월드컵시리즈를 합한 숫자를 훨씬 능가한다.

2002년 FIFA 월드컵은 21세기 정보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등의 첨단 매스미디어가 최대한 활용된다. 더욱이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전 세계의 TV시청 예상 인구는 연인원 420억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한 사람이 평균 6~7게임을 본다고 가정할 때 6월 한달 내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드컵은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경을 넘는 우호와 친선을 촉진시켜 왔다. 이번 월드컵 또한 인류 누구나 바라는 세계의 평화, 전 인류의 화합이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테러와 응징으로 점철되어 버린 지난해를 마감하고 지구촌 한 가족시대를 다시금 구현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다. 월드컵은 올림픽과는 다르게 여러 지방도시에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국가홍보는 물론이고 개최도시들이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난 해 부산에서 본선 조추첨 행사가 열렸을 때 이 행사는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월드컵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예는 많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대회 당시에도 '스페인'은 다르다(Spain is different)라는 구호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였다. 월드컵을 계기로 과거 40여년간 프랑크 총통의 독재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크게 바꿔놓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스페인의 국제화가 본격화되었다. 유럽에서도 경제가 낙후된 국가였는데 대회 10년 후 1인당 GNP가 두배로 증가하였으며, '태양의 나라'로 불리며 관광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프랑스도 월드컵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 세계 언론이 프랑스 전역을 간접 홍보한 결과, 과거에 '프랑스' 하면 '파리'만이 연상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월드컵을 개최한 리옹, 마르세유, 낭트 등 지방의 도시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민족 이민이 급증하면서 사회에 다민족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월드컵 우승을 계기로 다민족간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승전이 열리는 날 프랑스 최대의 신문인 르몽드는 사설을 통해 프랑스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는 프랑스 자신이라고 썼다.

우리도 이번 월드컵을 통해 지역간-계층간의 갈등을 털어 버리고 21세기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희망이다. 또한 국가발전의 중대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

만 그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월드컵은 지난 해 미국테러 사건 이후 개최되는 세계적 행사이기 때문에 테러는 물론 홀리건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전월드컵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6년 동안의 대회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안전월드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회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월드컵 기간동안 국가정보원 주관 10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공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월드컵 대회기간 동안 항공테러에 대비해 서울 상암동 등 전국의 경기장에 대공미사일이 배치되었다. 또한 경기장 인근 방공포부대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투대기 태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1시간까지 경기장 반경 32km 이내 상공에 F-16 등 최신예 전투기가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장내 대공미사일 진지에 공군 전술항공통제반을 가동, 한반도 상공의 모든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중앙방공통제소와 연결시켜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지원하는 등 공군의 노력은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대행사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대표팀이 주최국의 위신에 걸맞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응원을 보내는 일이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유럽지역 예선에서 탈락했던 프랑스가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하리라고 점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프랑스가 우승한 것은 온 국민의 열광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인류 최대의 잔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민족 대잔치로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공군 장병들이 적극 힘 모아 응원하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 ☺

최강의 전투력, F-15K는 어떤 항공기인가?





F-15의 발전과정

F-15(Eagle)는 1970년대 초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의해 새로운 제공전투기의 요구, F-4와 당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낸 F-111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초기 개발형인 F-15A/B는 1966년 개념연구를 시작으로 1972년 7월 27일 YF-15A가 첫 비행을 시작하여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총 445대가 생산 배치되었으며, 현재 미 공군, 주 방위 공군에서 운영중에 있다. F-15C/D는 1979년 6월부터 개량된 기종으로 2,000파운드의 연료를 추가적으로 탑재하여 작전가능시간을 늘렸으며, 기체수명시간을 4,000시간에서 8,000시간으로 증가시켰다. 그 후 1983년부터 항법장치, 무기체계, 자기방어기능 등이 대폭 보완되었고 총 1,233대가 생산(F-15A/B, C/D포함)되어 미국(894대), 이스라엘(52대), 사우디(74대), 일본(213대) 등에서 전천후 공대공 전투임무를 수행중에 있다.

다목적 제공전투기로서의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친 F-15E(Strike Eagle)는 미 공군의 새로운 전천후 전술전투기의 소요에 발맞추어 1982년 9월부터 개념연구를 시작으로 1986년 12월 최초비행을 하였으며, 그 후 5대의 시험용 기체와 1대의 양산형 기체를 사용한 시험비행을 계속 진행하여 1988년 4월 12일 에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의 405 전술훈련비행단에 최초로 인수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F-15E는 총 323대를 생산하여 미국(226대), 이스라엘(25

대), 사우디(72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미 공군 보충용 10대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가생산 배치할 계획에 있다.

실전 능력 입증

걸프전에서의 F-15C는 대공제압과 요격 등 공중우세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으로서 일반적으로 SWEEP(아측 공격편대군을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는 적기 제압) 및 공중전투초계비행(CAP) 등 아군의 전력보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SWEEP 임무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적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특정시간 동안 지역탐색을 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는 것이며, 전력방어 임무인 CAP 임무는 적 항공기로부터 공격을 받는 아군 항공전력을 보호하는 동안, 적 항공기에 의해 공격되는 아군의 항공기나 지상의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중방어개념이다.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 동안 F-15C는 이란으로 도피하려는 항공기를 포함한 많은 이라크 항공기를 파괴하고 방해하는데 사용되었으며, 24대의 F-15C가 1990년 8월 7일 최초로 전개한 이래 118대의 F-15C 항공기가 최종적으로 전개하였고, 이 전력은 미 공군 보유항공기 중 거의 28%에 해당되며, 사막의 폭풍작전기간 동안 5,096회의 OCA/DCA 임무를 수행하였다. F-15C는 공중작전 중 처음 며칠 동안에는 공중우세 임무를 담당하여 10일 내에 제공권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전쟁기간 동안 격추된 적기 38대 중 33대를 F-15C 전투기가 격추시켰다.

또한, F-15E는 2개 대대 48대가 참전하였는데 공대지 임무에서는 저고도 항법 및 주 야간 정밀공격장비(LANTIRN)를 구비했으며 Navigation Pod와 유도 및 비유도 공대지 무기를 장착하여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 중 공세적 대공제압(OCA) 임무에 투입되었고 전략폭격과 항공후방차단(AI)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F-15E 임무는 거의 대부분 야간에 수행되었고, 전투 중 2대의 전투기가 손실되었으며(첫 번째 손실은 OCA 임무 중 1월 17일에, 두 번째는 1월 19일 항공후방차단(AI) 임무 중) F-15E의 임무 수행률은 85.9%였다. 특히, LANTIRN POD는 야간에 목표물을 확인하고 동시에 LGB 폭탄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총 2,210회의 실전임무를 통해 LANTIRN을 이용, GBU-10/12 1,700개를 투하하였다.

또한 2대의 F-15 항공기에 각각 8발의 GBU-12를 장착하여 단 한번의 출격으로 16대의 장갑차를 파괴한 것은 F-15E가 지상군 지원을 위한 대전차 임무수행에도 탁월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더욱 강화된 F-15K

미국 보잉사는 우리 F-X 사업의 후보기종으로 실전을 통해 우수한 공대지 공격능력을 입증받은 F-15E를 한국 공군의 작전운용 성능(ROC)에 맞춰 F-15K라는 사양으로 제안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F-15K의 성능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AN/APG-63(v)1 레이더 : F-15K에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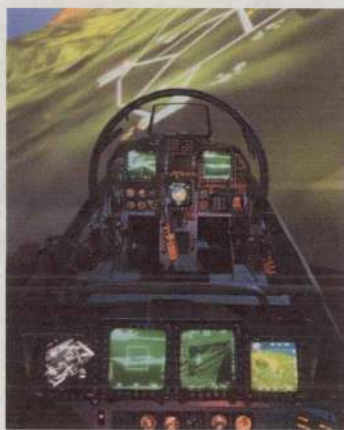


관심을 끄는 대상이 바로 레이더이다. F-15K에 장착되는 개량형 AN/APG-63(v)1은 F-15C/D에 장착되었던 기존의 AN/APG-63 레이더의 짧은 고장 발생주기, 복잡한 LRU(Line Replaceable Unit)의 모듈 디자인으로 인해 고장발생시 정비의 어려움, 그리고 점차 발달하는 공격무기와 신기술이 사용되는 전장에서의 운용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발전해 가는 관련 소프트웨어와의 공조를 원활히 하도록 고안되어졌다.

AN/APG-63(v)1 레이더는 앞서 나열한 문제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요소 탐지 측면에서의 신뢰성도 향상되었다. 또한, AN/APG-63 레이더의 우수한 공대공 성능에 공대지 임무시 필요한 이동표적 추적기능, 해상탐색기능, 그리고 고해상도 지형매핑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AN/APG-63(v)1 레이더의 탐색/추적거리

는 약 130km 정도이고 레이더에 의한 적아식별 기능(NTCR : Non Cooperative Target Recognition)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 공군은 F-15C/D의 대체 레이더를



AN/APG-63(v)2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는 AN/APG-63(v)1 레이더의 구성요소 중 능동전자주사방식(AESA :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로 개량한 것이다. F-15K에 탑재 예정인 기계적 주사방식(MSA : Mechanically Scanned Array)의 AN/APG-63(v)1은 추후 소요 발생시 AESA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JHMCS(Joint Helmet Mounted Cueing System) : F-15K에서 혁신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가 바로 JHMCS(헬멧장착 큐잉시스템)이다. JHMCS는 모듈식 항전장비로서 헬멧에 탈착이

가능하며 전투기의 HUD에 시현되는 내용을 조종사의 헬멧 바이저에 시현해 줌으로써 조종사의 작업량을 감소시켜주고 상황인지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비이다. 1998년 10월 이래로 지속적인 비행시험이 행해진 이 JHMCS는 미 공군의 F-15C/D에 의해 100시간, 미 해군의 F/A-18C/D에 의해 174시간을 시험해 왔다. 특히 미 해군의 F/A-18C/D에 의한 비행시험 내용 중 괄목할 만한 것은 JHMCS를 사용한 미 해군의 공대지 공격시험에서 표적포착시간을 기존에 비해 5배나 단축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차세대 고기동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개발과 연동한 JHMCS의 시험이 진행중이며 야간투시경(NVG)과도 조화시켜 사용이 가능하다.

추가 무장장착 능력 : F-15K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대지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사거리 약 250km가 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AGM-84H (SLAM ER)와 공대함/지 겸용의 AGM-84L(Harpoon Block II) 미사일을 각각 2발씩 장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밀타격능력을 보강하였다.

기타 향상된 장비 : 전자전 장비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장비들을 통해 취합한 개선요구사항들을 반영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전 모델에 비해 향상된 신호처리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전반적인 구성부품의 수는 줄여 정비성과 신뢰성 면에서 우월해졌다.

LANTIRN 시스템은 이미 입증된 전천후 공대지 임무능력을 제공하

며 업그레이드된 지형추적레이더는 주야간 및 악천후에서도 안전한 저고도 비행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F-15K 전투기에 장착되는 LANTIRN 시스템은 발전된 3세대 시스템이며, 이는 F-15E가 보유하지 않은 적외선 탐색 및 추적(IRST : Infra-Red Search & Track)시스템이 통합되어 레이더를 이용하지 않고도 공대공 표적의 위치 및 거리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의 중앙임무 컴퓨터인 ADCP(Advanced Display Core Processor)를 구비하여 데이터 처리성을 강화시켰으며 다른 시스템들과 함께 임무수행능력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키고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면에서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가능케 하였다. 이외에도 ALR-56C(V)1 RWR과 ALQ-135M 능동재밍시스템 등 보다 향상된 신호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정비성과 신뢰성이 우월해졌다.Ⓢ



차기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북한의 위협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를 목표로 전략적 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한 첨단전투기 확보가 주목적이며, 향후 공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의 확보를 이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중인 F-5A/B 및 F-4D/E 전투기는 2015년도가 되면 200여대 이상이 도태되어야 하기에 High급 전투기 전력증강을 위하여 차기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2015년 이후 공군의 Medium급의 전투기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공군은 이러한 전력공백을 한국형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차기전투기 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하여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확보를 국방과 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그간 공군이 추진해온 KT-1 기본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군의 전력증강 및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목표

2015년 이후 공군의 Medium급 주력전투기로 활용될 한국형 전투기는 주변상황 및 전투기 개발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최소한 F-16급 이상의 성능(첫째 공대공 및 공대지(함)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 둘째 국내 개발된 공대공, 공대지(함) 무장의 장착, 셋째 비

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항공무장 등의 핵심 분야의 국산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의 한국형 전투기 운용조건과 전투기 개발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스텔스(내부무장 포함), 고기동, 정밀타격 기능, 통합전자전 능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공군은 이러한 한국형 전투기를 2015년까지 개발완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개념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경 체계개발에 착수하는 개발계획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수립하였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차기전투기 사업 절충교역의 목표를 한국형 전투기 개발기술의 확보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개발기술 수준

국내 항공기 개발기술은 KT-1과 T/A-50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항공기 형상설계, 기체구조, 추진, 항공기기 분야 등의 시스템 설계 및 해석/시험평가 분야의 범용기술은 상당 부분 획득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투기 개발의 주요 핵심기술(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항공무장 및 시험평가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분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운용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수준의 40% 정도이다. 또한 시험평가 분야는 상당한 시설 투



자비 및 운용 Know-How가 요구되는 기술로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무장은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며, 항공기 고유특성에 맞도록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나, 타 무기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기반기술의 상당 부분은 확보되어 있다.

기술이전 기대효과

보잉사의 기술이전 내용은 절충교역 분야의 기술이전만 평가할 때는 정부통제 등을 이유로 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및 항공무장 분야의 기술이전에는 다소 제한적이며, 시험평가 시설 및 기술제공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차기전투기 사업의 본 계약 내용에 포함된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무장제어 분야 기술이전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 측에서 요구한 기술이전 내용의 상당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보잉사의 기술이전 내용은 타 기종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무장제어 기술은 적용된 전투기의 형상 및 운용환경에 따라 결정되

는 고유한 기술로 국외에서 제공되어지는 소스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해당분야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소요기술의 70~80% 정도를 확보한 후 잔여기술은 국내 자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및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을 통하여 국산화함으로써 기술수준을 100% 달성하는 것으로 차기전투기 절충교역 추진전략을 정한바 있다.

그러므로 본 계약과 절충교역을 통하여 제공되어지는 핵심기술을 활용할 경우 공군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형 전투기 적기(適期)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하여 보잉사에서 이전되는 기술과 시험평가 시설을 활용하여 2015년 F-16급 이상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2003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한국형 전투기 작전 운용성능(ROC)을 수립중에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그간 공군이 추진해온 KT-1 기본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군의 전력증강 및 국내 항공산업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F-15K 후속군수지원 Q&A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F-15K의 후속군수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공군을 포함한 F-15 항공기 운용국가들의 향후 운용전망, 장기간에 걸친 공군의 항공기 군수 지원 실태 등을 토대로, F-15K의 군수지원상 용이점과 2030년 이전과 이후의 군수지원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F-15K 항공기 도입시 군수지원상 용이점

군수지원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공군의 창설과 성장과정에서 한국공군의 군수지원 시스템은 미 공군의 군수지원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초기단계부터 한국공군은 미 공군 무기체계를 주로 운용해 왔기 때문이겠지만, 미 공군의 군수지원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한·미 공군 간 군수지원 시스템은 매우 유사하여, 한국 공군은 미 공군의 군수지원개념, 절차, 용어 등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F-15K 항공기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공군 군수지원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타 항공기 도입시에 비해 군수지원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훨씬 적게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정비지원 측면에서 정비개념이 동일하고 미국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경험이 풍부하며, 한·미 공군간에는 정비 기술지원을 위한 시스템(Technical Coordination Group, 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미 공군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도서에 익

기획특집 기획특집 기획특집 기획특집 기획특집 기획특집 기획특집 기획특집 기획특집 기획특집



숙해져 있어 활용이 용이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비지원 장비나 공구류 등 정비작업에 소요되는 물자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빠른 기간내에 정비지원 능력을 구비하고 숙달이 가능함으로써, 질 높은 정비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F-15K 항공기를 도입 운용시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보급지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군수물자를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잉사로부터 직접구매(상업구매)할 수도 있고, FMS 제도를 활용하여 미 공군으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무기 체계의 장비나 수리부속 등을 구매할 때도 활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업구매와 FMS 구매시의 가격이나 획득기간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의 구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요되는 품목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F-15K 항공기 운용에 있어서 국내 창정비 수행 여건이 다른 항공기 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다. 대한항공에서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F-15C/D 항공기의 창정비를 1982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군이나 민영업체(대한항

공, 한국항공)에서 F-15K 항공기의 기체 창정비 능력을 구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엔진의 경우는 F-15K 항공기에 장착하는 GE 엔진을 삼성 테크윈에서 기술도입 생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공기 전력화 이전에 이미 창정비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항공기 운용부대의 정비능력 구비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주한 미 공군의 경우 수시로 F-15 항공기가 전개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F-15E 항공기의 고정배치 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유사시 한국에 F-15E 항공기를 전개 예정임에 따라, 한·미 공군간 상호군수지원이 가능하여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항공기 가동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사시에는 상호군수지원의 효용성이 커져 작전운용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현재도 한국공군과 주한 미 공군이 F-16 항공기를 동시 운용하고 있어 수리부속을 서로 지원하는 등 상호군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30년까지의 후속군수지원

F-15K 항공기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도입된 후 2030년까지의 후속군수지원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미 공군은 2000년 7월에 F-15E 5대를 구매하여 현재 323대를 운용중이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0대를 추가 구매하여 2030년까지



운용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 공군이 2030년 이전에 F-15E 항공기를 도태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미 공군은 F-15 항공기의 후속기종으로 F-22 항공기를 700여 대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미 의회 승인과정에서 F-22가 300여대로 감소됨에 따라 F-15를 F-22와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F-15E는 2030년까지 운용예정임을 정부차원에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미 공군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F-15E 항공기를 2030년 이전에 도태시키지는 않으리라 확신한다.

이와같이, 미 공군이 2030년까지 운영하게 되면 미공군의 F-15 항공기 지원체계와 절차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보잉사를 비롯한 미국의 부품제작 업체에서도 생산시설을 유지할 것이기에 후속군수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미 공군·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등에서 다수의 F-15 항공기가 운용되기 때문에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은 가장 절정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항공기에 대한 군수지원 실적을 토대로 미 공군이나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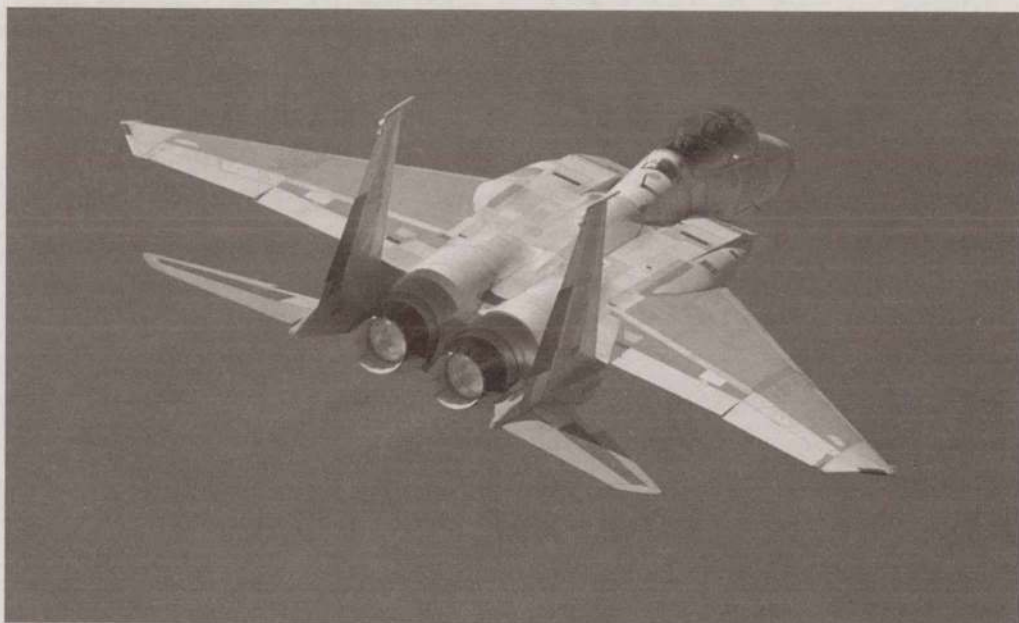
잉사의 군수지원 체계 및 절차가 성숙되어 있고, 소요산정·군수지원분석 등의 유용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에 따라, F-15K 항공기의 운영유지비는 다른 유럽 항공기에 비해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결정 1단계 평가요소인 수명주기 비용 중 운영 유지비에 대해 4개 경쟁기종을 대상으로 한국 국방연구원(KIDA)에서 평가한 결과 F-15K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영유지비는 30년 동안의 조종사와 정비사의 인력 유지비·수리부속비·연료비·탄약비 등 모든 운영유지 소요를 포함하여 평가하였는데, F-15K 항공기는 전체가 복좌로 인력 유지비 면에서 타 기종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운영 유지비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2030년 이후의 후속군수지원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2030년 이후의 후속군수지원에 관하여 살펴보자.

항공기의 운용기간은 대 북한이나 주변국 등



의 전략적 안보환경, 항공기를 비롯한 신규 무기체계의 개발추세, 경제적 여유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F-15K의 운용 기간은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즉, 2008년에 도입 완료되면 최대 2048년까지 운용될 것으로 보며, F-15E를 운용중인 다른 나라도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1999년도에 도입했으므로 2039년까지 운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계산대로라면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운용하게 되는 기간은 2040년에서 2048년까지의 9년간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공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스라엘이 함께 운용하는 2039년까지는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작사의 항공기생산중단이나 미 공군의 도태는, 곧 수리부속의 생산중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즉, 자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항공기 운용대수가 많을 경우에 수리부속 생산은 계속된다. 따라서 '한국공군이 단독으로 운용하게 되는 2040년 이후의 후속군수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므로 그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하자.

첫째, 미 정부에서는 F-15K 항공기에 대해 30년 이상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한다고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도입된 무기체계의 운용과정에서 후속군수지원상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국가간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차기 무기체계 구매원 선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에도 무기체계를 판매해야 하는 미국 정부나 보잉사가 단지 선언적 의미로 30년 이상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앞서도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작사의 항공기 생산중단이나 미 공군의 도태는 곧 부품생산 중단으로, 그 이후에는 후속군수지원이 곤란하여 항공기의 정상 운용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4D 항공기는 1968년, F-5A/B 및 F-4E 항공기는 1970년대, F-5E/F 항공기는 1980년대



에 생산 중단되었으나, 현재까지 후속군수지원 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87%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군에서 설정한 표준 가동률 80%(F-4D는 8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공군에서는 이들 항공기의 일부를 2030년 이후까지도 운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미 공군이 F-15E 항공기를 2030년까지 운용하고 도태시킨다 하여 후속군수지원 상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만약 미측이 F-15K 항공기의 부품 일부를 생산 중단한다 할지라도 국내 제작 및 정비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업체의 관심이 증대되어 항공기 부품에 대한 국내 제작 및 정비능력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공군에서는 기본훈련기(KT-1)와 고등훈련기(T-50)의 국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5년경 F-16 항공기급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관련 기술 확보와 국내업체의 능력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째, 2040년 이후의 F-15K 항공기 후속군수 지원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F-15E 항공기를 운용하다가 도태시킨 미국·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의 잔여 재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항공기의 수리부속 소요발생은 매우 불규칙적인 면이 있어 아무리 과학적인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소요를 산정한다 할지라도 항공기 도태시에는 잔여 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미 공군은 그러한 잔여재고를 한국 공군 운용 항공기가 도태시까지 유지하게 될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도태시킨 항공기의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인 폐기를 추진할 것이다.

F-15K 항공기는 적어도 2039년까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후속군수지원을 할 수 있고 2040년 이후 도태시까지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040년 이후 F-15K 항공기의 수리부속을 지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도태 항공기의 부품을 탈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40년 이후가 되면 한국 공군에서 F-15K도 단계적인 도태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먼저 도태된 항공기의 부품을 탈거하여 잔여 운용 항공기의 소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방법은 F-4 및 F-5 항공기의 경우 현재도 적용하고 있다. 만약 2040년 이후의 일정 시점까지 공군에서 운용중인 F-15K를 전혀 도태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 공군의 도태 항공기에서 부품을 탈거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F-4 항공기 긴급 애로품목을 미공군 도태 항공기에서 탈거하여 활용한 실적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15K 항공기는 적어도 2039년까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후속군수지원을 할 수 있고 2040년 이후 도태시까지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지원 가능하며, 현재 운용중인 F-4 및 F-5 항공기의 경우가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정밀공중공격(4)

- 정밀공중공격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1. 왜 정밀공중공격이어야 하는가?
2. 정밀공중공격의 사례
3. 정밀공중공격 시스템
4. 정밀공중공격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항공전력은 최첨단 기술력에 힘입어 정밀성을 겸비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 더욱더 결정적 전력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정밀공중공격능력 확보는 군사혁신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쟁을 지배하는 핵심전력이 과거 지상병력에서 해상전력으로 변화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항공전력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항공전력은 최첨단 기술력에 힘입어 정밀성을 겸비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 더욱더 결정적 전력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정밀공중공격능력 확보는 군사혁신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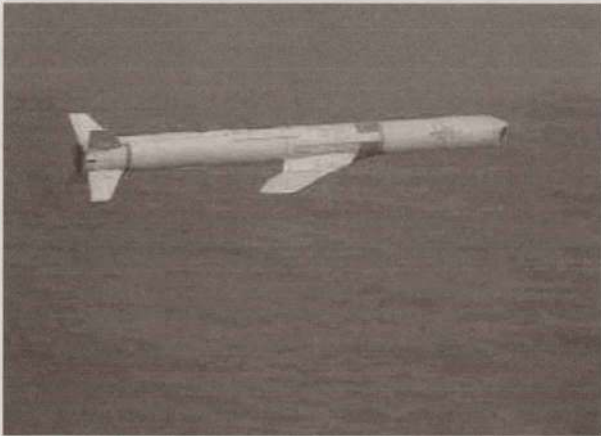
미래전역 기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는 주어진 시간과 공간 내에서 전략적 또는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절차 수립인 전역기획에 있어서도 정밀공중공격 형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역기획을 위해

서는 먼저 위협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요구되는 적정한 군사력 건설을 계획하게 된다. 상대방의 위협분석과 공격양상을 가정함에 있어서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대규모 지상군에 의한 침공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 만약 위협과 침공양상을 대규모 지상군에 의한 침공으로 가정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해 영토권 내에서 지상군 작전 위주로 격퇴를 고려한다면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우리의 군사력 건설은 미래전역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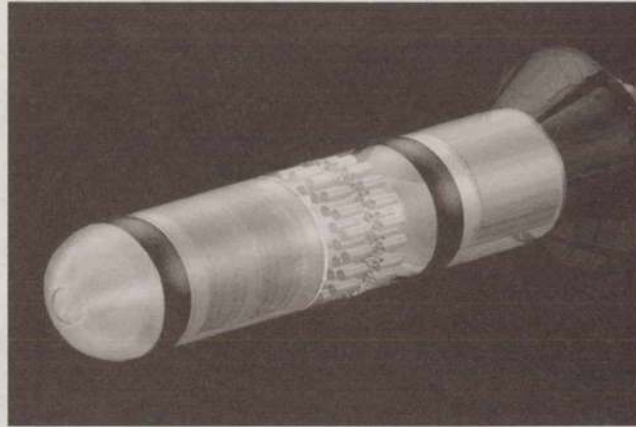
항공력은 걸프전에서 무장이 잘된 대규모의

야전군을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적은 희생으로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공세적이며 전략적으로 운용할 경우 전략적 억제전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전쟁발발시 영토권 밖에서 적을 격퇴 혹은 마비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한 능력 중 핵심적인 것이 정밀공중공격이며 따라서 정밀공중공격을 고려한 항공전역이 중심이 된 전역기획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대부분의 분쟁에서 항공력 중심의 작전을 하고 있으며, 원정항공우주군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연합작전기획에 있어서도 많은 항공전역전문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전력 증강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군사력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밀공중공격이 현대전과 미래전의 일반적인 작전형태가 되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이러한 능력 확보에 주력한다면 우리의 전력 증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앞으로 군사력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밀공격은 여러 가지 복합 요소의 결정체이고, 정밀공격이 가능하려면 인공위성 등과 같은 감시정찰체계, 첨단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정밀타격체계를 상호 연계한 복합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자산 중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를 비롯하여 일부 타격 체계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능력 확보를 통한 현대전과 미래전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력들에 우선순위를 둔 군사력 건설이 요구된다.

정밀공중공격 능력 확보는 군사력 평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군사력 평가가 병력의 수와 무기의 단순 개수 비교 방법 혹은 공격성공을 위해 대략 방어자보다 3배 이상 전력을 가져야한다는 3:1 법칙 등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전과 미래전 수행 능력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하며, 군사력 측정에 어떤 요소가 보다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여러 무기들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정밀공중공격 시스템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전력들이며 전쟁 승패의 결정적 전력으로서 일부분의 기여는 단순 수치적 부족이 아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

군구조 및 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집중된 표적에 대하여 은밀하고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과 정밀공중공격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부대 조직이 집중보다는 분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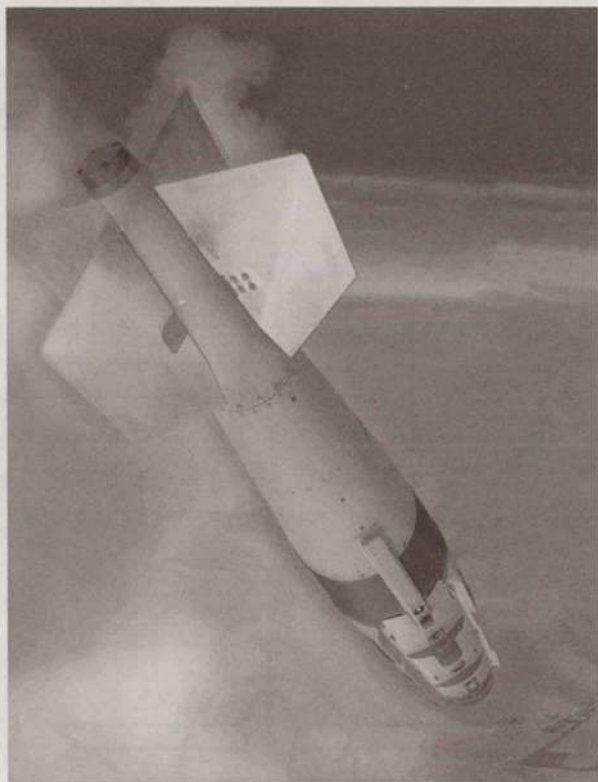
형태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원거리에서도 신속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점도 분산의 이유가 된다. 현대전은 화력의 집중과 기습이 동시에 필요한데, 지상군은 집중을 위해서는 기습의 효과 감소를 어느 정도의 감수해야 하는 반면 정밀공중공격은 기습과 집중을 동시에 달성한다. 따라서 병력 집중의 원칙은 앞으로 타격효과 집중의 원칙으로 대체될 것이며, 현재 전장의 단위 면적당 병력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에서는 항공력이 지상군 작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수부대는 표적 정찰 및 현지 군사집단과의 연락군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전통적인 지상군들의 역할은 지상장악 및 전후 평화유지의 마무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적의 정밀공중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이 공중우세를 위해 우선적인 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공군의 여러 시설들이며, 이 시설들이 파괴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비개념을 적용하여 작전예비기지를 상시 운용하여야 하며, 기술중심의 군이기에 더욱 체계적인 동원체제가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한 군사 연구 저널에서는 항공기와 활주로는 주요 표적이므로 한 개 비행단의 적정 항공기 수는 최대 50대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탄약, 미사일 등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한 특수 장비 및 지원 시설, 방공호, 방공시설 등이 갖추어진 다수의 기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항공력 활용에 관한 전략적 시각 필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무리 정밀공중공격의 중요성과 그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여도 항공력 활용에 대한 전략적 시각이 없다면 반영되기 어렵고, 반영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작전에 투



입되지 못할 것이다. 항공력 활용에 대한 갈등은 걸프전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미 육군은 항공력을 공지전투 개념에 근거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책결정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전략적 시각에 의해 적의 중심을 공격하는 정밀공중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전쟁을 단기간에 저비용 저희생으로 종결하였다. 또한 당시 육·해군의 보유 항공기도 전문성 있는 단일 항공지휘관에 의해 전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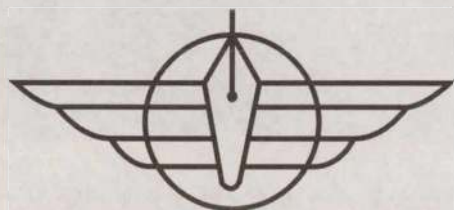
정책결정자들의 항공력 활용에 대한 전략적 시각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정밀공중공격 전력이 우리 군에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므로 항공력 활용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키우기 위하여 많은 전역기획 및 교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항공전역을 수립하고 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

공군종군문인단사(1)

공군사관학교 중령 신영덕

6·25 한국전쟁 당시 <공군종군문인단(창공구락부)>은 공군 작전수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군종군문인단>의 조직배경과 활동상, 작품 등을 이 분야 전문연구가인 공군사관학교 신영덕 중령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창공구락부 마크>

조직배경 및 활동

전쟁이 발발하면 문인들이 군을 따라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쟁체험을 작품으로 발표하는 일은 세계문학사에서 그리 낯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문인들의 종군활동이 정부의 지원하에 조직적이고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예는 흔치 않다. 아마도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체험 혹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 문인들의 종군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일본 문인들은 1938년 9월 <종군작가육군부대>, <종군작가해군부대>를 결성하였고, 북한 문인들은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을 따라 남한으로 내려와 전쟁에 관한 작품 및 종군기 등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것은 향후 보다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규명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일명 <창공구락부>로 알려진 <공군종군문인단>의 조직배경과 조직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종군문인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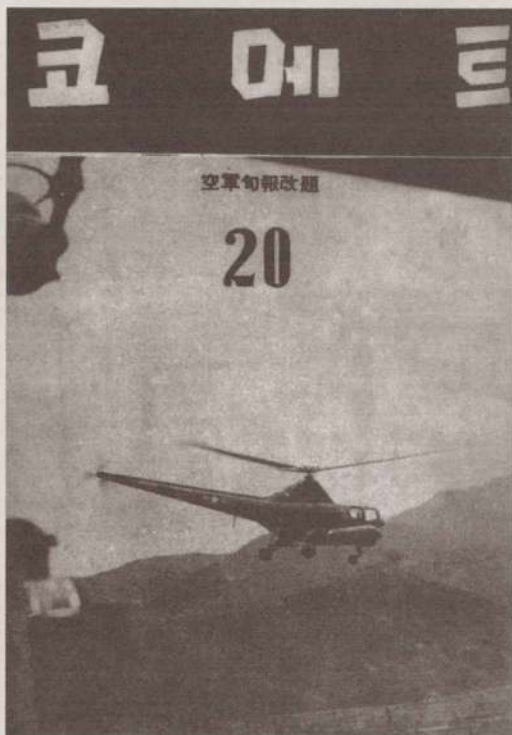
전쟁이 발발하자 그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간부들은 문예사 사무실에 모여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27일에는 <비상국민선전대>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비상사태에 기동성 있게 부응할 수 있도록 임시로 결성한 문인들의 별동조직이었다. <비상국민선전대>는 국방부 정훈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신문, 방송, 기타 보도기관에 전달하고 국민의 전의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민심을 안정시키는 선전 계몽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자 많은 문인들은 한강 이남으로 탈출하게 된다. 일명 '도강파' 문인으로 불리고 있는 이들 문인들은 <종군문인>이라는 포목 완장을 달고 정훈국의 일을 맡아 하다가, 다시 대전으로 후퇴한 후 <문충구국대>

던 것은 가입동기가 이처럼 다양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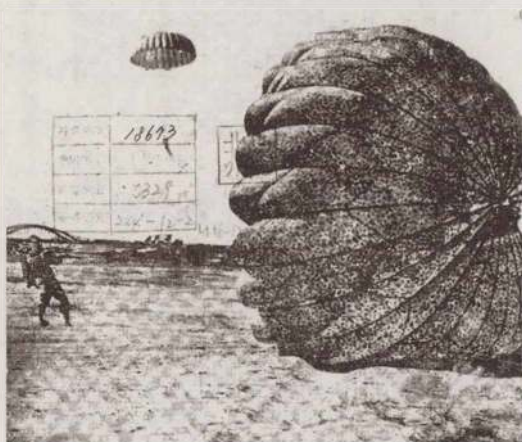
매우 적극적으로 종군활동을 하였던 단원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단원들은 이름만 내걸고 종군 한 번 하지 않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사단의 'CP (지휘소)' 정도만 구경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에는 문인들의 종군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은 '문학인들 중에는 군에 복무하는 것을 무슨 권세기관에 아부하는 듯이 경원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였으며, 구상은 '종군작가라 하면 마치 <어용작가>로 여기고 또 그 작품은 으레 비예술작품시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그러나 종군작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이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실증적 자료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空軍旬報

14



종군기, 또 하나의 전쟁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군종군문인단>의 종군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공군종군문인단>은 육·해군의 종군작가단과 달리 대내외의 통상 명칭으로서 <창공구락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공군 정훈감실 문관처럼 군으로부터 보급 외에 쌀 등을 받으면서 창단목적 달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종군활동은 제약이 많았다. 육군과는 달리 전쟁을 실제로 체험하자면 폭격기를 타고 나가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여 군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비행기 안에는 비전투원을 위한 좌석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실전에 분투하는 조종사들의 활동을 종군기로 남겨 후방에 알리고 또 그것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쓰기도 하였다. 이들은 시, 소설, 가사, 종군기, 신문·잡지에의 기사제공, 번역소개, 연극, 강연회, 문학의 밤, 작품 낭독회, 포스터, 전단, 표어, 그리고 항공에 관한 작문모집 등의 방법으로 군 내부적으로는 사기양양, 정서함양을 도모하

고 대외적으로는 일반 항공사상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공군중군문인단원들은 여러 공군기지에 중군하기도 하였다. 『정훈대계』에 의하면, 1951년 5월 29일에 조지훈, 최인욱 단원이 여의도기지에, 1951년 8월 박두진, 유주현 단원이 사천기지에, 1952년 3월에 마해송, 조지훈, 최인욱, 이한직 네 명의 단원이 부산 경유 제주기지에, 5월에는 유주현이 사천기지에, 6월 7일에는 이상로가 강릉기지에 각각 중군하였고, 10월 1일에는 이상로가 다시 강릉기지에, 17일에는 마해송 단장이 대전기지에, 1953년 3월 6일에는 최인욱이 강릉기지에, 1955년 8월 7일에는 이상로가 오산기지에 중군하였다고 한다(『정훈대계 I』, p.B240).

空軍史의 소중한 기록

공군중군문인단원들은 기지중군 이외에도 항공사상 강조의 신문사설 및 신문기사를 쓰고 중군기 발표 및 외국기사 등의 보도선전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항공기 헌납운동(1951.7.15~1951.8.31)을 전개하였으며, 최인욱 각색 『날개 춘향전』을 신협극단의 배역으로 대구문화극장에서 공연(1952. 6. 6~8)하기도 하였다. 당시 <육군 중군작가단>의 활동은 타 중군작가단에 비해 그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였는데, <공군중군문인단>은 이들과 연합하여 수차례의 중군결과 보고대회, 시극강연대회 및 건군기념예술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특히 대구 자유극장에서 상연된 문인극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하루를 더 연기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구상, 「종합예술제 여담」).

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공군중군문인단> 단원들이 공군 기관지 발행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공군기관지 『공군순보(空軍旬報)』, 『코메트』, <공군중군문인단>의 기관지 『창공』, 시집 『창공(蒼穹)』, 소설집 『훈장』 등을 발행하였다.



趙芝薰
보라매여! 너의 祖國은 韓
海東靑, 너의 祖國은 韓

白日이 빛난다
너의 功勳으로

보라매여! 너는 韓國의 空軍, 너의 功勳은 民族의 誇다. 내게 불어지고 열풍까지 타지면 너는 滿春의 꽃잎처럼 飄零에 沈沒한다.
☆
피서 온 쉼터로 돌아오는 네 것일 텐데 이
는 바람이 향그럽다.

날개치는 보라매에게

여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던 바, 다음 호에서는 전쟁 동안 이들이 발표했던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정보과학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THINK TANK - 전투발전단 체계분석실 -

전투발전단 체계분석실 소령 권 중 철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인구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전 국민의 정보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일반인들도 전문화된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군사분야는 다른 영역과 달리 전쟁이 주는 호기심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일반화되었으며, 이제는 초등학교생들도 군사 전략가를 뺄 정도로 컴퓨터를 이용한 군사전략 시뮬레이션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미래전은 사람이 직접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상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목적과 용도에 따라 상대의 취약한 곳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과거처럼 말을 타고 긴 칼을 들고 상대와 싸운다던가, 총

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다소 영웅적인 모습의 전쟁은 사라졌다. 앞으로는 신체적으로 강인하지도, 무모한 용감성도 필요 없이 명석한 두뇌와 판단을 갖고 컴퓨터를 통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근 코소보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무인 정찰기를 통해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 등 첨단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군사분야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활용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전투자산을 가동하지 않고 실전과 같은 전투경험을 부여하고, 실제 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군사분야에 있어서
미래전의 양상을 예견함은 물론,
첨단 무기체계의 복잡화, 훈련장 및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시 훈련장 확보 곤란이나 국방예산의 축소 등 국방관련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국방분야의 건설 및 유지와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공군도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작전계획의 분석, 전시에 필요한 자원의 소요,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평가 등 교육·훈련 분야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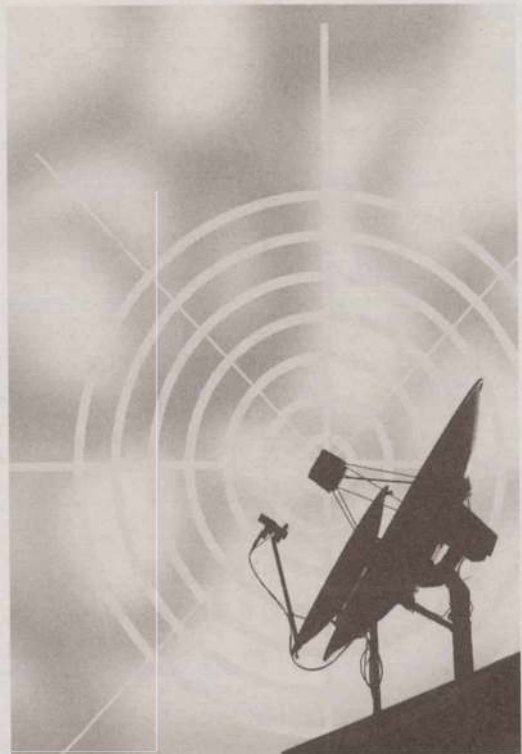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뮬레이션이 실제와 비슷하다는 것은 사용하는 위게임 모델을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위게임 모델의 데이터 베이스는 가치 정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재산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없는 보호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위게임 모델은 판매를 하더라도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는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체계분석실은 공군 작전계획의 검증과 대안제시, 무기체계, 전투효과지수 및 적·아 전력 비교분석 등 과학적이며 계량화된 공군력의 운용과 경제성, 신뢰성이 있는 군사력 건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업무들은 공군 작전에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체계분석실은 항공작전분야만큼은 국내·외 어느 전문기관보다도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미래 공군이 지향하는 정보과학군으로 가기 위한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공군 건설의 초석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군사분야에 있어서 미래전의 양상을 예견함은 물론, 첨단 무기체계의 복잡화, 훈련장 및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체계분석실은 국방·획득·전력분석·교육/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체계가 <미래 지향적 과학공군 건설>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고, 21세기 정보과학군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축구시합을 마치고
제1전투비행단 제주기지에서(1951)

공이 둥근 것은
물론
잘 구르기 위해서다.

오늘
11명이 하나가 되어
힘 없이 달리고
골 하나에 목이 터져라
환호한 것은

전장의 포화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다.

전장의 하늘을
날고 있을
전우를 몰라서가 아니다.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우리는
공을 차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공은 둥글어 좋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좋았다.

3대를 이은 공군사랑

공군병 4기 최윤창



저는 공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 3대가 공군 제복을 입게 되었기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 공군이 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76세의 촌로입니다. 1949년 7월 20일, 공군병 4기로 입대하였으며 이산의 아픔을 지닌 이산가족으로 6·25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군에 입대하던 1949년 당시는 몹시도 무덤고 가뭄이 심했던 초여름이었습니다. 그 해 10월 1일, 육군에서 독립하여 공군이 창설되었죠. 새 군복, 새 계급장, 새 희망을 안고 각 분야에서 기틀을 다지고자 노력하던 중, 곧이어 6·25가 발발하였습니다. 포화가 멎은 지 어언 50여 년, 어느 덧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고 20대 청년이 이제 70 고개를 넘어 80을 바라보는, 녹슨 훈장

의 주인공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에 깊이 자리잡은 주름만이 지난날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공군사랑은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저의 뒤를 이어 공군 부사관 62기로 공군제복을 물려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고 공군 상사로 전역하여, 지금은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손자가 공군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당당한 공군 장병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공군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할아버지로서의 바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로서는 한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따름입니다.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공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공군이 선사한 선물

대전 성세재활학교 부모회장 오복종



영공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군참모총장님과 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체장애아동 특수학교인 대전 성세재활학교에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은 지난 번 공군군악대와 의장대가 대전에 위치한 저희 재활학교를 방문하여 멋진 연주와 시범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교의 장애아동들은 중증장애와 복합장애로 인하여 이동하는데 많은 제약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견학 가는 일도 쉽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공군군악대와 의장대의 방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의 날이나 어린이날도 장애아동들에게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공군군악대와 의장대의 방문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할 나위 없이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공군이 선사한 고마운 선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내일의 나는 공군조종사

신왕초등학교 부연분교 6학년 전재규

공군아저씨들의 초청으로 공군부대 가는 날. 게다가 오늘 우리 모두는 모형항공기대회에도 참가하기로 되어 있다. 어젯밤 어찌나 잠이 안 오던지... 공군아저씨들을 만나자 너무나 반가웠다.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공군아저씨 차에 마차 삼촌차인 양 편히 올라탔다. 공군부대 아저씨들과 우리학교는 자매결연을 맺어 해마다 우리들을 초청하여 부대구경을 시켜 주신다. 이것저것 너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미안할 때도 많다. 너무 고마운 분들.

세상에! 오늘 우리는 '진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그냥 구경만 했던 비행기를 정말로 탄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 배로 빨리 뛰었고 손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뛰어 놀던 산과 마을 위를 날아가는 기분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공군아저씨들이 챙겨주신 꿀맛 같은 점심을 먹고 모형비행기를 날렸는데 생각보다 잘 날지 못해서 약간 서운했지만 오늘은 정말 끝내주는 하루였다. 역시 공군아저씨들은 친절하고 씩씩하고 특별한 분들인 것 같다. 나도 자라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공군아저씨가 되고 싶다. 공군아저씨들! 항상 건강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



공군 아저씨, 언니들 힘내세요

서울 정목초등학교 3학년 김 하 은/CBS 김준옥 기자의 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정목초등학교 3학년에서 다니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을 맞아 공군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보았어요. 여객기는 타보았지만 공군 비행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공군하면 빠르게 하늘을 나는 전투기만을 생각했는데 커다란 덩치에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멀미도 했구요(~a). 또 창 밖으로 보이는 프로펠러가 너무 빨리 돌아가 혹시나 프로펠러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믿음직한 공군 아저씨들이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시고 신기한 것도 많이 보여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기보다는 점점 재미있어 지더라고요.

비행장에서는 미사일도 보고 전투기도 보았어요. 더욱 신나는 것은 전투기에 올라가 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전투기가 갑자기 앞으로 나갈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했지만 전투기 안에 수많은 버튼들이 몇 개나 되는지, 왜 전투기 주차장은 터널처럼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질문도 많이 했었지요.

저는 조종사 아저씨들께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우리 비행기와 적군 비행기를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전부 “그래”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늘 높이 있는 나는 비행기를 소리만으로 구별할 수 있다니,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데, 역시 공군 아저씨들은 씩씩하고 멋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빨간마후라 아저씨들이 참 멋져 보였어요. 참, 군인 언니들도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멋진 제복을 입은 예쁜 군인 언니들을 보니 공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 꿈은 아빠처럼 기자가 되는 것이지만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들을 위해 미사일에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 또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공군 아저씨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번 어린이날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거예요. 공군 아저씨, 언니들 힘내세요. 🇰🇷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그리고 공군

서울 초당초등학교 6학년 정지윤/매일경제신문 정현권 기자의 딸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에 가는 날. 그것도 공군에! 나는 들뜬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을 괴롭혔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아침은 그렇게 조금은 소란스럽게 시작하고 있었다. 국방 관련 소식을 전하는 기자단 가족들을 위한 비행단 견학행사. 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기자인 우리 아빠와 함께 약속장소인 국방회관 앞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후 우리는 푸른색 공군버스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가득 안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맑은 5월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이끄는 곳에는 우리를 태울 커다란 프로펠러 수송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공군아저씨는 우리가 도착한 곳이 대통령아저씨나 외국의 귀빈들이 이용하는 공항이라고 말해주셨다. 그럼, 우리도 귀빈? 즐거운 기분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머금어 졌다.

프로펠러 소리에 아득해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비행기는 활주로에 내려앉고 있었다. 가볍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끝없는 활주로! 갑자기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전투기가 날아올랐다.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몸이 짜릿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2대의 전투기가 서로의 꼬리를 물며 아름다운 에어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지 놀란 눈에 탄성을 자아내며 박수를 치기에 바빴지만 부대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서 공군 아저씨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했다. 밤잠을 잊은 채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종사아저씨의 말에 캄캄한 밤이 그저 어둠만이 아님을, 한낮의 푸른 하늘도 공군아저씨들이 채워 가는 뜨거운 엔진소리에 더 파래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둠을 하얗게 밝히는 공군 아저씨들이 있다는 것. 앞으로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날 것 같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우리 아빠 파이팅! ✈





마크 에를레르(1932~2002)

음악에 목숨을 걸고

서울시 교향악단 양창섭

올해 초에 쿤터 반트라는 지휘자가 죽었다. 향년 90세. 베토벤, 브람스, 브루크너 등 정통 독일 레퍼토리만을 평생 탐구한 그의 공연실황을 그가 죽은 직후에야 볼 수 있었다. 작년, 그러니까 89세에 일본 도쿄에서의 연주를 담은 DVD였다. 그는 자기 혼자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인지 무대에 걸어나올 때 누군가의 부축을 받았고, 지휘가 끝나고 걸어나갈 때에도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늙은 마에스트로의 지휘는, 동작이 격렬하진 않았지만, 충분했다. 아마 그것은 연습시간을 1분도 단축하지 않는다는 평소의 훈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놓은 그였지만 그는 죽기 전까지도 연습을 하고,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최일선에서는 아니었지만, 내가 가까이서 모시던 지휘자 마르크 에를레르도 지난 4월에 돌아가셨다. 러시아에서 온 그가 리허설을 위해 연습장소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가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단번에 알았다. 평소에도 느릿느릿 걸어나갔지만, 그 역시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손에 쥐어준 지휘봉은 연습실로 걸어가면서 두 번이나 바닥에 떨어졌다. 병원에 가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끝끝내 연습실로 들어선 그는 10분만에 단원들의 만류로 연습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 병원 현관에서까지 그는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고, 의사가 차 안에서 그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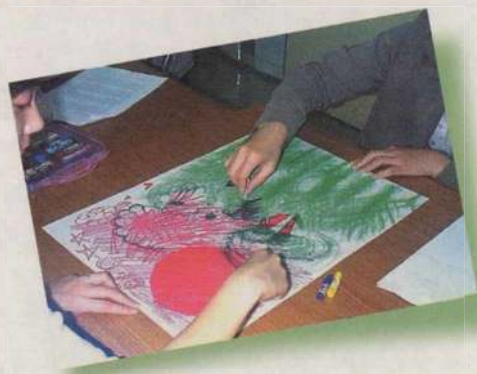
찰해야 했다. 몇 시간의 실랑이 끝에 차에서 내린 그는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아마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늙기를 거부했을 것이다. 병상에서도 그는 연주를 걱정했고, 악보를 가져오라고 했다.

음악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만들었을까. 에를레르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연주가 자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했을 뿐이다. 그것은 투철한 직업정신이라기보다는, 음악을 자신의 소명이라 여겼기 때문일 터이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음악이 자신의 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의 음악이 절대적으로 최고, 1류의 음악이 아닐 수도 있다. 지휘를 자주 하지도 않지만 항상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천재, 괴짜들도 있다. 그들에게 음악은 천재성의 과시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음악은 돈이나 스포츠카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을 걸지 않고도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 낸다니 그 재능이 부럽기는 하지만, 존경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바친 음악가들의 피땀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음악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 ⊕

미술치료, 그림 보며 마음의 病 고친다

대전매일 문화부 기자 권도연



그림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고흐의 색채와 터치에서 그의 미치기 직전의 정신상태를, 르느와르의 풍만하고 부드러운 인물그림에선 그의 원만한 인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미술작품은 작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심리상태에 처해 있었는지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한 작가의 무의식까지 엿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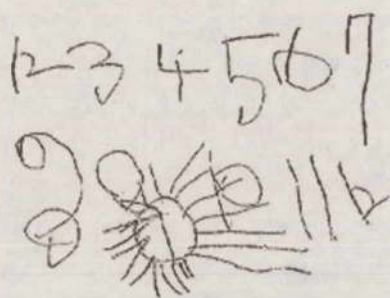
'그림에는 그린 사람의 내밀한 정서가 가감 없이 드러난다'는 전제에서 출발, 미술을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도 각종 미술치료학회가 결성되고 인터넷 사이트도 속속 개설되면서 생소하지만은 않은 개념이 됐다.

미술의 또 다른 힘, '미술치료'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림이나 공작 등을 통해 의식

을 드러내면서 치유효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환자는 그림을 통해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치료사는 그것을 통해 환자와 교감하면서, 그림이 환자의 마음을 열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미술행위가 가장 무의식적인 에너지까지도 표현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과 함께,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아이도 만들거나 그리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자폐증 환자나 치매노인의 치료에도 활용되는 미술치료는 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림치료전문가들이 흔히 그리게 하는 것이 자화상·가족화·집·나무·사람 등이다. 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안정적인지를 비롯, 특정부위를 강조하거나 생략하는지와 공간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그림이 화면 왼편으로 치우치면 위축된 상태고, 오른쪽에 치우치면 충동적인 성격을 암시한다. 위쪽에 주로 그리면 들뜬 상태며, 아래쪽으로 그리면 우울한 성향을 나타낸다. 나무그림에서 나무의 등치는 정서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나무등치를 크게 그리다가 점점 사실에 가까운 비율로 그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 사람그림에서는 손을 그렸는지가 중요하다. 손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라고 한다.

종이·사진 등을 오려붙이는 콜라주 기법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미술 테크닉으로 현실감이 부족한 정신장애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 콜라주 외에도 조소나 회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주로 쓰는 색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폭력적인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곡선과 직선을 통해서도 심리를 측정할 수 있다.

미술치료사 이근매(대전미술치료연구소 소장) 씨는 “색깔을 보면 그린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림은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창”이라며 “아픈 마음과 기억까지도 그대로 나타낸다”고 말한다.

소년원에 다녀온 청소년은 찰흙으로 조각작품을 만들라고 하면 공룡이 다른 공룡을 물어뜯어 피를 뚝뚝 흘리는 섬뜩한 장면을 만들기도 한다. 또 가족을 그려보라고 할 때 함께 나란히 서있는 모습 대신 엄마와 큰누나·작은누나·여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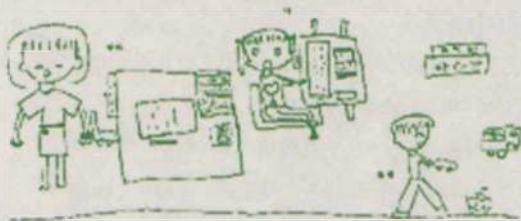
이 한쪽에 있고, 아버지와 자신 등 남성이 다른 쪽에 있는 모습을 그리면 대립적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자폐증 어린이가 그린 가족그림에는 자신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푸는 할머니 모습만 동그란 테두리를 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있다.

이씨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며 자기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며 “크레파스와 종이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치매노인이나 아이들에게 미술치료를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1주일에 1~2회 정도, 노인이나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 옆에 다정히 앉아 얘기를 하며 주제를 정해 그리라고 권한다. 환자들은 대부분 귀찮아하며 크레파스를 던지기도 하고 종이를 찢기도 하지만, 차분히 연습을 시키면 마침내 종이 위에 줄을 긋는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크레파스의 생생한 촉감을 느끼고 손바닥의 작은 근육들이 자극되어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 때 환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따스한 스킨십과 함께 “너무 잘 그렸다”고 격려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미술치료라고 해서 미술로만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과 치료와 병행된다. 치료를 받으면 그림에도 변화가 생긴다. 재미있는 점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그려놓은 작품들 중 일부는 현대추상미술작품으로 내놓아도 별 손색이 없는 것도 있다는 점이다.

미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도와주며, 혼자 해결하기 힘든 벽찬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창작에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있음은 예술가들의 경우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복잡한 사회 속에 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쫓기듯 사는 바쁜 삶 속에서 조금만 시간을 내 그림을 그리며 정상과 비정상의 대비와 그 치유과정들 통해 자기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





재즈와 항공, 그리고 글렌 밀러 (Glenn Miller)

비행기 날개에 실려온 재즈



재즈 칼럼니스트 황 덕 호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윌버, 그리고 오빌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 '플라이어' 호가 인류 최초로 성공한 비행은 오늘날 보기에는 '비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20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비행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향후 100년간 인간에게 다가올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가치관과 문화의 대변혁을 알리는 일종의 전주곡이었던 것이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최초로 이륙한 바로 그 시기에 미국 남부 항구도시 뉴올리언즈의 스토리빌이라는 흑인 거주지역에서는 열띤 즉흥연주가 어우러진 '재즈'라는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비행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낳았던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자신의 부를 북부의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대시키자 남부인구 약 1천만명은 그곳을 향해 이동했는데 재즈는 이 인구이동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그러한 20년대를 '위대한 게츠비'의 작가 스코트 피츠제럴드는 '재즈의 세대(Jazz Age)'라고 불렀으며, 반면 프로테스탄티즘과 빅토리아 왕조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전후(戰後) 데카당트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재즈가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이 음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세인트 루이스의 정신' 대서양 횡단

그런 와중에서 1927년 5월 20일 C. A. 린드버그가 비행기로 뉴욕을 출발해 최초의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을 때 그 비행기의 이름이 '세인트 루이스의 정신(Spirit of St. Louis)'이었으며, 도착지가 프랑스 파리였다는 사실은 재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연치고는 너무도 의미 심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윌리엄 크리스토퍼 헨디가 작곡했고 베시 스미스가 25년에 발표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St. Louis Blues)'가 말해 주듯이 세인트 루이스는 '재즈의 복상'을 담당했던 재즈의 새로운 중심지였으며,

더욱이 재즈는 보다 근원적으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뉴올리언즈에서 프랑스인과 흑인노예의 혼혈인 크리올(Creole) 계층을 통해 탄생한 음악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과거 배를 통해 며칠은 족히 걸렸을 뉴욕-파리의 공간이 비행기를 통해 당시 33시간으로 압축되었던 시기, 20년대에 미국은 재즈를 통해 유래 없는 정서적인 수렴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대중문화의 실질적인 출발이기도 했다.

대공황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반 베니 굿맨에 의해 재즈는 스윙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미국의 국민음악이 되었으며 록큰롤이 탄생하기 전까지 스윙은 대중음악과 동의어였다. 그러므로 대륙간 비행은 물론이고 세계일주 비행마저 가능해짐으로써 높아졌던 비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당시 30년대 스윙음악에 반영됐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삽입됐던 헤롤드 알렌 작곡, E. Y. 하버그 작사의 1939년 작품 'Over the Rainbow', 역시 같은 해에 맷 말백과 프랭크 시노렐리가 작곡하고 미첼 패리쉬가 작사해서 이후에 마릴린 몬로 주연의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에도 삽입됐던 'Stairway to Stars'가 당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인간의 오랜 꿈이던 하늘에 대한 동경이 현실 속에서 이뤄졌던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꿈의 실현은 1930~1940년대 미국 낙관주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당시 스윙의 대표주자였던 글렌 밀러는 20세기라는 공간 속에서 막연하게 얽혀 있던 비행과 재즈라는 두 요소를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시킨 인물이다.

항공기술과 함께 발전한 재즈

글렌 밀러는 1904년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트롬본 연주를 전공으로 음악을 공부한 그는 1924년 벤 폴락 오케스트라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그의 음악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악단 출신이자 향후 스윙의 판도를 좌우한 베니 굿맨, 잭 티가든, 지미 도시, 진 크루파 등과 함께 레드 니콜스 오케스트라 등에서 30년대 초까지 함께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후 '34년에 그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영국인 밴드 리더 레이 노블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하다가 결국 1937년 자신의 첫 오케스트라를 결성했는데 2년만인 '39년 뉴욕과 뉴저지 무대에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재즈 오케스트라로 급부상하게 된다.

글렌 밀러가 거뒀던 성공은 라디오 방송의 영향과, 당시 굴지의 담배 회사였던 체스터필드의 후원 속에서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를 비행기로 순회하면서 펼친 대대적인 공연 덕분이었다. 그 속에서 그는 'Runnin Wild' 'Chatanooga Choo-Choo' 'American Patrol' 과 같은 그의 대표곡들이자 전형적인 미국식 작품들은 물론이고, 'Indian Summer' 'Danny Boy' 'A Cabana in Havana' 'A Little Old Church in England' 'How I'd Like to Be With You In Bermuda' 'In An Old Dutch Garden' 'On A Little Street In Singapore' 등 수없이 많은 이국적인 소재의 작품들을 남겼다. 이러한 곡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던 글렌 밀러의 독보적인 위상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역시 당시 항공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계된 것이었다.

창공에 몸을 실은 방랑자, 글렌 밀러

하지만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이 전 세계를 누

볏음에도 유독 글렌 밀러를 창공과 관련 지어 기억하는 이유는 역시 그가 1942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해산하고 미 공군에 자원 입대하여 '공군 악단(Air Force Orchestra)'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런던을 근거지로 하여 2차 세계대전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재즈를 연주했는데 그것은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한 장면에서도 그의 음악이 흐르듯이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들에 대한 가장 큰 위안이었고 동시에 재즈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선구적인 노력 중의 하나였다. '44년 세상을 떠난 그는 런던에서 파리로 공연차 이동하는 도중 기상악화에 의한 비행기 실종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몇 해 전 공개된 미 국무성 문서에 의하면 그는 런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당시 이 사실은 미군 사기저하를 우려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死因)이 무엇이든 그는 창공에 몸을 실었던 진정한 방랑자였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글렌 밀러의 음악을 통해 향수를 달렸으며, 동시에 세계인들은 그를 통해 스윙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됐다. 한국전쟁 이후 초창기 국내 빅밴드들 역시 글렌 밀러의 작품을 가장 많이 연주한 것도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군출신 '플라이 보이' 광규석 씨가 진행하던 국내 TV 쇼의 효시 '쇼쇼쇼'의 시그널이 이봉조 악단이 연주한 글렌 밀러의 대표곡 'In the Mood'였다는 사실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름의 의미를 지닌 연출이었다. 어쨌든 재즈는 비행기 날개에 실려 그렇게 이 곳까지 전해진 것이다. Ⓜ

거미남자의 키스, 스파이더맨의 매력

영화평론가/제15훈성비행단 중위 김지훈

〈스파이더맨〉은 얼핏 보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영화다. 우리 모두는 “스파이더맨”이 생고무 같은 탄력과 유연성으로 고층빌딩과 도시를 주름잡는다는 것을 유명한 만화 시리즈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파이더맨은 슈퍼맨과 배트맨이 그랬듯이 만화에서 실사화면으로 각색된 허구적 캐릭터의 계보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이 왜 다른 ‘선배’ 캐릭터들보다 훨씬 뒤이어 지금에 와서야 카툰(cartoon)의 세계를 뛰쳐나왔고, 거기에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스파이더맨〉에게는 거미줄 말고는 적을 제압할 만한 특별한 무기는 없다. 배트맨처럼 위압적인 무기도 없고, 슈퍼맨 같은 초능력 광선과 하늘을 나는 재주도 없다. 그렇다고 가제트 형사처럼 말만하면 온갖 무기와 도구들이 몸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캐릭터도 아니다.

그렇지만 오밀조밀한 빌딩과 천장 사이를 요리조리 왕복하고 점유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그만의 장점이다. 알고 보면 그 유려하고도 긴장감 있는 몸짓은 최근에 우리가 〈매트릭스〉의 ‘총알 피하기 장면’을 보았을 때 느끼는 쾌감과도 비슷하다. 상호 이질적인 공간들을 자신의 손과 발 밑에 아우르는 능력은 오늘날 인터넷과 가상공간, 게임화면에 몰입하는 관객들이 상상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능력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하게 적을 때려부수는데 몰두하는 액션영화 캐릭터와는 달리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는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평소에는 속된 말로 ‘범생’ 이미지 때문에 학교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매력적인 여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본래’ 스파이더맨(그러니까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하기 이전의 인간)은 성장영화의 주인공과 상당 부분 흡사하다. 샘 레이미 감독이 “이 영화를 성장영화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 이면적인 불완전성과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 사이의 불일치는, 선악의 양면을 가진 배트맨과는 또 다른 지점에서 오늘날 관객들의 집단적 욕망을 낚아챌 수 있는 거미줄을 엮어 낸다. ④



축구공 하나로 만나는 세상

방송작가 김 은 희

세상이 온통 축구 이야기다. 우리가 주최하는 월드컵이 눈앞에 닥쳤으니 그럴 만도 하겠지만 신문이며 TV, 라디오는 물론이요 모였다하면 온통 그 얘기뿐이니 축구에 별 관심 없는 나로서는 처음엔 이게 웬 난리인가 싶었다. 다행히 월드컵 기간 동안 내가 몸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차례 불방된다고 하니 어디로 조용히 몸을 피했다 와야지. 일찌감치 엉뚱한 데로 마음을 돌려놓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옆 프로그램의 작가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게 보였다. 고민의 주제는 바로 축구였다. '우리도 축구에 관한 아이템을 하긴 해야 하는데 웬만한 건 죄다 훔쳤으니' 그럴 만도 했다. 방송이란 시청자 관심의 방향을 좇아 움직이게 마련이니 당대 최고의 이슈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 하지만 수십 개의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터에 차별성 있는 신선한 아이템 찾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골머리를 싸매는 그 작가 곁에선 월드컵 특집을 맡은 또 다른 작가가 덩달아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튀어야 할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였다. 그때서야 비로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방송 프로그램과 신문 지면을 채우는 그 많은 축구 이야기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신문의 스포츠면은 당연히 각국의 선수소개, 전력 등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꼭 축구광이 아니더라도

도 챙겨두면 월드컵을 몇 배로 즐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매일 차고 넘친다. 참가국들에 대해 알고 관람하자는 취지의 해외 프로그램들도 호시절을 맞이하고 있다. 각국의 풍물과 스타 플레이어, 그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까지를 아우른다. 라디오에선 아줌마 축구단이나 초등학교 우승팀 탐방으로 축구에 대한 열풍을 조망하고, 짬짬이 월드컵을 주최하고 관람하는 태도에 대한 계몽도 섞여 있다. 축구광에 대한 소설까지 나온 걸 보면, 지금은 바야흐로 '축구의 전성기'라 할 만하다.

하지만 역시 축구열기의 '제왕'은 뭐니뭐니해도 CF가 아닐 수 없다. 멋진 숫자세를 모아모아 놓은 스포츠용품 광고에서부터 응원열기를 활용한 카메라와 음료, 술광고들도 넘쳐난다. 앞뒤로 스무개의 광고가 붙는 프로그램을 불라치면 그 중 반 이상의 광고에선 꼼짝없이 축구장면을 봐야 할 정도다. 축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제품들도 '월드컵 입장권' 등의 경품과 심지어는 '이기면 황제, 지면 팡' 식의 내기를 조장하며 구매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광고전쟁을 보고 있노라면 '축구의 기원은 전쟁'이라는 설이 진짜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그러던 중,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CF가 하나 등장했다. 히말라야썸으로 보이는, 험준하지만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저 멀리 움직이는 한 떼의 사람들이 보인다. 가까이 보니 남루한 차림의 동양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다. 더 가까이

보니 그들이 차고 있는 건 축구공이 아니라 천을 얼기설기 엮어놓은 '가짜 공'이다. 그리고 다음 장면. '진짜 공'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는 장면이 보인다. 'OO사는 전쟁과 기아로 시달리고 있는 오지의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의 자막이 뜬 후 이어지는 카피 한 줄. '축구공 하나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가짜 공을 차며 놀 때의 그 해맑고 평화로운 표정이라니. 진짜 공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흑인이나 백인 아이들도 함께 공을 차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하는 걸 보면 그 광고는 분명 '축구'라는 명사의 키워드로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음이 틀림없다. 환호와 영광, 열광적인 응원. 이런 요란한 월드컵의 코드에서 비껴나 조용한 사색을 제안하는 아름다운 풍경. 마치 '우리 팀이 이길 때만이 진짜 기쁜 일일까요? 이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월드컵의 참의미가 아닐까요'라고 말을 건네는 것만 같은.

공놀이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고

대의 시인 호머의 글에 편

을 갈라서 공을 차

는 얘기가 나

온다니 적

어도 그

이전부

터 사

람 들

은 공

을 차

고 놀았

던 모양이

다. 우리나라

에서는 삼국시대

부터 격구라는 공놀이가

있었다. 얼마 전 내가 방송했

던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축구 '바 게임'도 역사가 4백년이나 됐다고 했다. 윗동네 아랫동네편을 갈라서 1년에 한번,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독특한 축구경기. 이제서야 그때 마지막 내레이션으로 '축구공 하나로도 화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던 기억이 난다.

축구공 하나로 만나는 세상. 그것은 참으로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졌다. 그 중에서 세계인의 축구축제로 일컬어지는 월드컵이 선택한 '세상'은 무엇일까. 무엇이어서 할까. 월드컵이 국가의 이름으로 공을 차게 되어 있는 한, 사람들의 열광과 응원은 대부분 그 나라의 깃발과 이름에 바쳐진다. 하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모습일 뿐,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세상은 아직은 여백으로 남아있음에 틀림없다.

오늘도 책 한 귀퉁이에서 축구에 대한 구절을 발견했다. '축구가 전쟁의 모습을 닮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진영 사이의 적대행위가 아니다. 그것이 경기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두 진영 사이에 공이 있기 때문이다. 공은 싸움을 놀이로 바꾸어 준다. 놀이와 싸움 사이에서 축구공은 아름답다.'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축구공의 힘은 참 큰

것 같다. 하지만 그 힘이 가장 아름답

다운 순간은 역시 '싸움'

이 아닌 '놀이'로

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가 아닐

까. ⊕





대만의 마조축제

출판사: 사진작가 김석중

대만의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인 마조축제는 매년 음력 3월 23일에 열린다. 양력으로는 4월 중순이나 5월초에 열리는 이 축제는 여해신(女海神)인 마조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이다. 이 축제의 유래는 10세기경 중국의 복건성(福建省)에서 어부의 딸로 태어난 마조가 꿈과 현실의 전개로부터 시작된다.

서기 960년 마조가 복건성에서 태어날 때 서북쪽으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추어 왔고 그녀가 태어난 침대 주위는 향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생후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 병어리인줄 알았을 만큼 과묵했던 그녀는 영민한 지혜가 뛰어나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간 아버지와 두 오빠가 탄 배가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에 잠들었던 마조는 꿈속에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두 팔로 두 오빠를 하나씩 옆구리에 끼어 이(齒)로 아버지의 옷을 물고 구조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다가 그만 아

버지는 바다에 빠져 숨지는 꿈을 꾸었다. 실제로 두 오빠만 살아오게 된 상황에서 그녀는 심한 죄책감과 함께 바닷가를 헤매다 3일 만에 아버지의 시신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후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던

마조는 어느 날 산 정상에 올라 천자(天子)와 함께 승천했으며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28세였다고 한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선행은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세간의 입을 통해 구전되었고, 먼저 어부들이 그녀를 바다의 여신으로 숭상하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그녀의 신상(神像)을 배에 모셔 제사를 드리며 바다의 재난으로부터 자신들과 배를 보호해 줄 것을 빌기 시작했고 일반인들도 차츰 그녀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만능의 여신으로 추앙하기에 이른다. 급기야는 중국 황실에서도 마조를 여신으로

대만에는 마조여신을 모시는 사원이 300여개나 된다. 한국인들이 석가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듯이 대만인들도 마조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를 매년 음력 3월 23일을 기점으로 1주일 동안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식 선포하게 됨에 따라 마조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친밀한 기복(祈福) 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또한 마조가 태어난 복건성 사람들이 대만의 초기 이민자들이었으며 이들이 대만해협을



건너 올 때 흑 풍랑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없애기 위해 배 안에 모셔둔 마조신에게 간절한 기도와 제사를 드렸을 광경을 생각해 보면, 마조여신에 대한 대만인들의 경외심을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저런 연유로 하여 대만에는 마조여신을 모시는 사원(물론 여러 다른 신을 함께 모시는 사원이 대부분이다)이 300여개나 된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석가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듯이 대만인들도 마조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를 매년 음력 3월 23일을 기점으로 1주일 동안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마조사원의 총 본산지이며 가장 큰 마조사원인 조천궁(朝天宮)이 있는 북항(北港)에서 출발하는 마조여신 행렬은 1주일 동안 인근 도시를 돌아 신항(新港)의 봉천궁에 안치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다. 봉천궁이 있는 신항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어스름이 깔리는 시각이었다. 도착하자마자 화려한 라이트로 장식한 차와 대형 인형들이 수많은 인파 사이를 뚫고 지나고 있었고 요란한 폭죽소리와 함께 하늘로 치솟는 폭죽의 빛줄기가 잠겨오는 어둠의 검은 커튼을 찢고 있었다. 옛날 병사복을 입은 호위병들이 밀려오는 인파들을 막으며 행렬을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그 사이로 여러 복신(福神)들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복신 주위에는 행사요원들이 계속해서 폭죽에 불을 붙여 복신 발 밑과 주위에 던지고 있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음이 요란하였다. 사

진을 찍다가 깜짝깜짝 놀라기 일쑤. 폭약의 자욱한 연기를 안고도 길가에 연도한 인파들은 저마다 향을 피운 채 행렬이 지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열심히 주문을 외운다. 가게 앞에 마련된 임시 제사대에는 과일과 부적, 촛대 등을 세워 놓고 저승 노자돈(물론 가짜 돈이다)을 태우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중국인들이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붉은 색 조명등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차가 그 옆을 지난다. 이윽고 마조여신을 실은 마지막 가마가 사람들의 어깨들에 실려 나오기 전 9척 장신의 거대한 두 호위병이 나타난다. 보기에도 겁먹을 귀신의 탈을 쓴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내다볼 수 있고, 또 수십 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들 두 호위병은 옛날,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고 있는 어부들의 바람을 상징화했다고 한다. 멀리 폭풍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일기 시작하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마를 멘 이들은 일부러 가마를 흔들어 풍랑을 이기고 앉아있는 마조여신의 의연함을 과시한다. 폭죽소리와 폭죽불꽃은 거리전체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메케한 연기로 가득 차게 한다. 이윽고 가마행렬이 봉천궁에 도착하면 마조여신은 조심스럽게 들려져 정해진 자리에 안치되는 것으로 1주일간의 여정이 끝나게 된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에



싱그러운 초록빛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고 눈부시게 푸르르고 아카시아 꽃향기가 그윽하게 느껴지는 6월이다.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하순경부터는 여름철 기상 특징인 장마와 돌번기상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연강수량의 약 60%인 700mm가 여름(6, 7, 8월)에 내리는데 그 중에서도 장마 기간인 6월말부터 7월말까지 350mm가 내린다. 그러면서 국지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집중호우라 함은 하루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의 8%(약 100mm) 이상 내리는 것을 말하며, 이런 많은 비가 하루에 내렸을 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31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집중호우는 총 535회로 연평균 20회 정도가 발생하는데 월별로는 6월 82회, 7월 188회, 8월 265회로 6월말에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6월 초순 이전에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배수

로 및 토사유실 우려가 있는 곳을 정비하고, 저지대 침수다발지역 사전점검과 함께 지반이 약한 도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또한 뇌우의 피해를 받기 쉬운 전주, 변압기, 변전소 등을 점검하고 고지부대의 취약지역을 보강하는 등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까지 사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병들은 여름철 기온상승과 습도증가로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시기이니 식중독이나 개인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절기로는 보리를 먹게 되고 벼모를 심는다는 망종(芒種)이 6일이며, 하지(夏至)가 21일이다.

6월, 우리의 산하는 눈부시게 푸르르고 만물이 약동하는 습소리를 주위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그윽한 아카시아 꽃향기에 취해 지저귀는 새소리도 잇을 듯하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망종(芒種)을 전후해서 농가에서는 보리수확과 모내기가 연이어져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우리 공군 장병들 역시 바쁜 와중에도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도 하다. Ⓧ

뉘뉘한 도리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먼 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五倫)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맹자는 “부모와 자식간에는 친애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지아비와 지어미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올바른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이면서 오상(五常)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조선조 명종 때의 문신 소요당(逍遙堂) 박세무 선생이 지은 동몽선습(童蒙先習) 머리편에 나오는 글이다.

흔히 대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뉘뉘한 다섯 가지 도리이자 문장 속에 함축되어 있는 행간의 깊은 뜻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먼저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정해준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며, 자식은 부모를 받들어 그 뜻을 이어가고 효도 하면서 봉양해야 한다. 곧 부모와 자식간의 도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무적(雙務的) 당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군신관계는 얼핏 보기에 절대적이며 일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나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의 지켜야 할 도리를 극진히 할 때 바른 정치를 펴나갈 수 있음을 역설(力說)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의 도리는 그 객체(客體)로서의 역할(役割)을 엄격하게 구분(區分)하고 각각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만이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며 집안의 법도(法道)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어른과 아이는 하늘이 차례 지어 준 관계이다. 어른은 어린 사람을 사랑하고 어린 사람은 어른을 공경해야 도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붕우지간(朋友之間)은 이른바 같은 부류를 의미한다. 붕(朋)은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同門)을 의미하고, 우(友)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同志)을 말한다. 곧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사람을 붕우(朋友)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식견이 많은 사람, 진실한 사람만을 붕우(朋友)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일은 하늘이 펼쳐준 모범이며, 사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도리이다. 사람의 행실이 이 다섯 가지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이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편타당(普遍妥當)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사람이 지켜야 할 뉘뉘한 도리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글의 의미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

작은 것이 아름답다

공군본부 환경과



큰 도시, 큰 공장, 큰 집, 큰 차가 작은 도시, 작은 공장, 작은 집, 작은 차보다 환경오염이 클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굳이 작은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큰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두는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큰 집, 큰 차를 갈구할 때 환경오염은 가중될 것이고, 그 오염의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색적인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국토면적으로는 세계 100위도 안되면서 60평이 넘는 아파트, 6기통의 외제차, 호화분묘 등 모두가 큰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손쉬운 길은 각자 자기 주변의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다. 근로자, 주부, 직장인, 학생, 정부 모두 자신의 활동영역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해결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거창한 슬로건,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의 실천과 노력 없이는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상당량의 환경오염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천, 호수 등 수질오염 원인의 70%가 가정 생활하수이고 폐기물과 대기오염도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자동차, 난방 등의 연료사용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을 지구를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디에고 가르시아의 하늘(1)

57공군수송지원단 소령 전 완 영

디에고 가르시아는 푸른 바다에 떠있는 말발굽 모양의 아름다운 섬이었으나, 가슴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이륙하는 폭격기의 모습에서 드디어 최일선 비행장에 와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동시에 임무완수에 대한 굳은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나는 올해 1월과 4월 하순,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항구적 평화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군의 해외비행에 동승하였다. 목적지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인도양의 작은 섬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상참모로서 해외임무에 동승한 목적은 미군의 전장에 대한 기상지원체계와 디에고 가르시아와 인도양의 기상현상 체험, 그리고 수년간 축적된 그들의 기상자료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의 중간기착지를 경유해야 도착할 수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만큼 오랜 비행을 요구했다. 귀국 후 두 차례 모두 다음날 아침까지 이명(耳鳴)현상과 함께 식사시간에는 머리가 식탁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는 느낌도 겪어야 했다. 해외비행의 어려움은 단지 오랜 비행시간과 시차뿐만이 아니었다. 도처에서 발생하는 인도양 상공의 열대 기상현상들은 군 작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악천후를 이겨내고...

역사적인 공군 제57공수비행단의 해외 첫 비행은 작년 12월 21일에 시작되었다. 6박 7일간

약 50시간의 비행. 항로는 순탄치 않았지만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아오는 중간경유지는 S국의 P공항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우리 항공기가 접근 중 예상치 못하였던 악천후로 인하여 인도네시아로 비상착륙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수송기가 디에고 가르시아를 이륙하기 직전 우리나라에 위치한 상황실과 교신한 착륙 예정시간의 첫 예보는 소나기 가능성과 2마일의 시정 예상이었다. 그 정도의 기상예보 수치는 P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시정 제한치인 1½마일을 웃돌았다. 항공기는 목적지 기상예보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획대로 이륙하여 약 여덟시간 가까이 걸리는 비행을 시작하였다.

수송기가 인도양 한가운데를 비행할 때쯤, 아침에 발표되었던 예보는 이착륙 기상제한치를 밑도는 수치로 수정되었다. 항로의 반 이상을 지나온 인도양 상공의 항공기를 무슨 수로 디에고 가르시아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말인가? 수정예보대로 S국의 P공항은 실제 착륙시간대의 공항시정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½마일로 떨어졌고 개항 이래 처음 악천후로 인한 공항기능



폐쇄조치가 취해졌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공기의 남은 연료로 과연 몇 분 더 체공이 가능할까?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우리 승무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승무원과 항공기의 안전, 그리고 만약 다른 나라의 공항으로 비상착륙한다면 영공통과 문제를 비롯한 복잡한 외교적 차원의 문제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사전에 준비한 예비기지와 비상착륙기지의 기상은 파악되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상황실로서는 사실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였다. 비행장이 폐쇄되고 잔여연료를 소비하며 약천후의 구름 속에서 체공 중인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심정은 아마도 이곳에 있는 우리의 심정과 큰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결국 기장인 대대장의 순발력 있는 판단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의 향라던 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였다는 조종사의 보고를 접하는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호흡을 고를 수 있었다.

팜의 열대 폭풍

○월 ○일 새벽 02시와 03시, 한시간 간격으로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항공기 2대가 팜에서 마

닐라로 이륙예정이었다. 나 역시 비행시간에 맞추어 상황실에서 항로기상을 모니터하고 있었다. 이륙시간 네 시간 전 팜의 앤더슨기지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현지 미군 기상대의 예보는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인 열대폭풍 발생으로 항공기 이륙과 항로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곳 비행장의 관측전문(METAR)은 암흑 같은 심야에 소나기와 함께 강풍이 불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기상상황 토의를 위하여 현지의 조종사, 동승한 우리 비행단의 참모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고음의 다급한 억양으로 좀더 정확한 기상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계획된 임무시간은 다가오고 비행기상 여건은 악화되고 있었다. 대기승객인 미군 장병과 군수물자 수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정확한 기상예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대한민국 공군의 임무실패로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상태였다.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이륙시간과 거리, 그리고 태풍의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얼마 후 공군기상전대 위성실의 도움으로 최종



적인 예보를 내어 앤더슨기지의 우리 조종사와 다음과 같이 교신하였다. “열대폭풍이 현재 15KT로 북상하고 있으며 앤더슨과 마닐라 직항로상의 중앙지점에 열대폭풍(가장자리)의 접근 시간은 0일 새벽 06시에서 09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현장의 조종사는 임무시작 시간을 각각 한시간씩 앞당겨 이륙한다고 상황실에 보고하였고, 이륙 후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피하여 목적지인 마닐라에 미군 장병과 군수물자를 무사히 수송할 수 있었다. 이곳 상황실에서는 항공기 이륙 이후 임무가 종료되는 다음날 아침까지 조종석과 기내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전 상황근무 요원이 걱정스런 마음으로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였고 임무완수 이후 모든 승무원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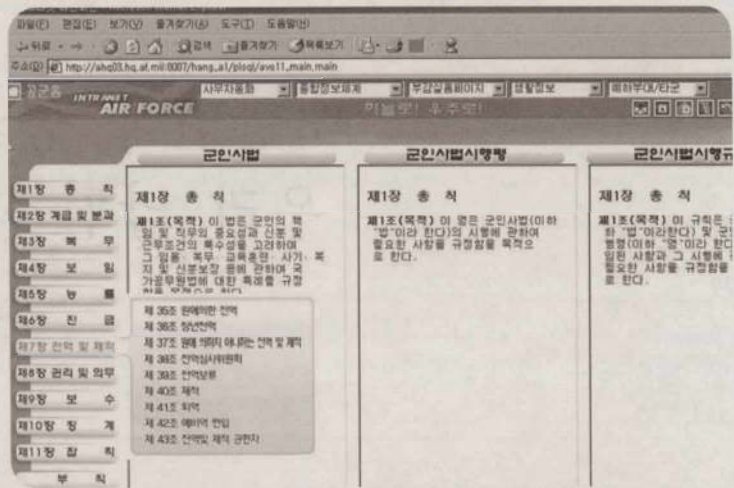
새벽 5시 모든 승무원들은 해외비행 이륙 두 시간 전에 소속 비행대대에 집합하였다. 이른 새벽임에도 승무원들의 반짝이는 눈에서는 이번 작전의 중요성과 각자의 임무수행에 대한 각오를 읽을 수가 있었다. 드디어 항공기는 계획된

시간에 기지를 이륙하였다. 우리 항공기가 제주도를 지나 남쪽으로 비행 중에 있을 때 기내에는 항공기의 엔진소리와 함께 무언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많은 해외 비행경력을 갖고 있는 비행대대장의 승무원들에 대한 부드럽고도 침착한 격려는 기내의 분위기를 일순간 바꾸었고, 그러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은 모든 승무원들이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다음날 S국을 거쳐 드디어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 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그곳은 모든 것이 생소할 따름이었다. 착륙 전 상공에서 본 디에고 가르시아는 푸른 바다에 떠있는 말발굽 모양의 아름다운 섬이었으나, 착륙 직후 그곳 비행장에는 공중급유기와 폭격기들이 나란히 주기되어 있어 착륙 전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느끼는 감정은 대조적이었다. 가슴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이륙하는 폭격기의 모습에서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전의 최일선 비행장과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동시에 임무완수에 대한 굳은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다음호에 계속). ☹

클릭 한번으로 인사상담 해결!

공군본부 공보과



어렵게 구한 두꺼운 인사법령 책자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봐도 자신이 찾는 항목은 보이질 않는다. 물어볼 사람은 없고 궁금함은 점점 커진다. 아니, 세상이 어느 때인데 한두줄 짜리 법령 찾는데 이리 힘들어서야... 그러나 이제는 고민 끝. 앉은 자리에서 클릭 한번으로 군인사법령·시행령·시행규칙까지 한번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군 전투발전단 군제연구실에서는 군인사법령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전산화한 후 공군 인트라넷에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속·정확한 인사업무처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설된 '군인사법령 인사상담' 홈페이지는 군인사법령(군인사법령, 군인사시행령, 군인사시행규칙)을 동일 조항별로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기관(국가공무원법, 소방·경찰법, 병역법 등) 법령도 조항별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62년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된 군인사법 내용, 과거판례, 국방부 질의해석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장병들에 대해 군인사법령 관련 제반지식을 폭넓게 이해시키기 위해 군인사법 이해 코너도 만들었다.

이번 '군인사법령 인사상담' 페이지 개설에는 전투발전단 김선범 대위의 노력이 컸다. 김대위

는 제10전투비행단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군인사법 관련 책자를 접하기가 힘들었고 그에 따라 장병들과의 인사상담시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개정된 군인사법령을 접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작년 11월부터 구상을 시작한 김대위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군인사법령 인사상담' 홈페이지 구축작업에 들어가 3월에 작업을 완료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군인사법령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령 책자를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소수 인사업무 실무자들만이 접할 수 있었고 일반 장병은 접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군인사법령 인사상담' 홈페이지 개설로 장병들은 누구나 군인사법령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령 개정시 담당자의 간단한 수정으로 개정 법령을 신속·정확하게 장병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발전단 군제연구실장 정명훈 대령은 "인사상담이 필요한 장병들이 군인사법령 관련 지식을 인트라넷상에서 습득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인사참모와 원격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상담이 가능케 되었고 타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군적으로 인사업무 수행에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공군 대위, 우리 남편 파이팅!

57공군수송지원단 유제의 대위의 아내 서 경 옥

건강했으면 좋겠다. 음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후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이 너무 고단해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걱정과 바람을 가져보지만 무엇보다도 외로움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을 멀리 떠나면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 익숙한 환경이 아닌 낯선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사실 아이들 아빠가 석달, 짧지 않은 시간을 타국에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느끼는 걱정이나 서운함은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내 집에서, 내 아이들과 익숙한 환경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변함 없는 석달이 아닌가.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긴 하겠지만 세 꼬마들과 다투고 웃고 그렇게 정신 없이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석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낯선 타국에서 그 시간을 보낼 남편에겐 결코 생각만큼 쉽게 하루가 가지 않을 것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일손을 놓고 있는 여유 시간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눈에 밟힐 게 분명하고 아주 가끔은 잔소리하는 아내도 그리워질 것이므로.

문득 예전에 시어머님과 함께 공주에 있을 때가 떠올랐다. 밤이면 전화를 걸어온 아이들 아빠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오래도록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곤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남편은 참 많이 외로워했던 것 같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쌍둥이의 모습이 궁금해서, 그걸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인지, 한번 집에 다녀갈 때면 언제 그렇게 챙겨갔는지 아이들의 사진이 잔뜩 사라지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이들과 내 사진을 들여다보며 외로움을 달랬던 것 같다.

아마 이번에 출국할 때도 남편은 한 움큼의 사진을 챙겨갈지도 모르겠다. 왜 그걸 말리고 싶어질까. 사진이라도 가지고 가서 얼굴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밤이면 청승 떨듯 사진이나 들여다보며 그리움을 달랠 아이들 아빠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몽클하기도 해서, 사진 속의 아이들 모습 때문에 그리움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리고 싶어지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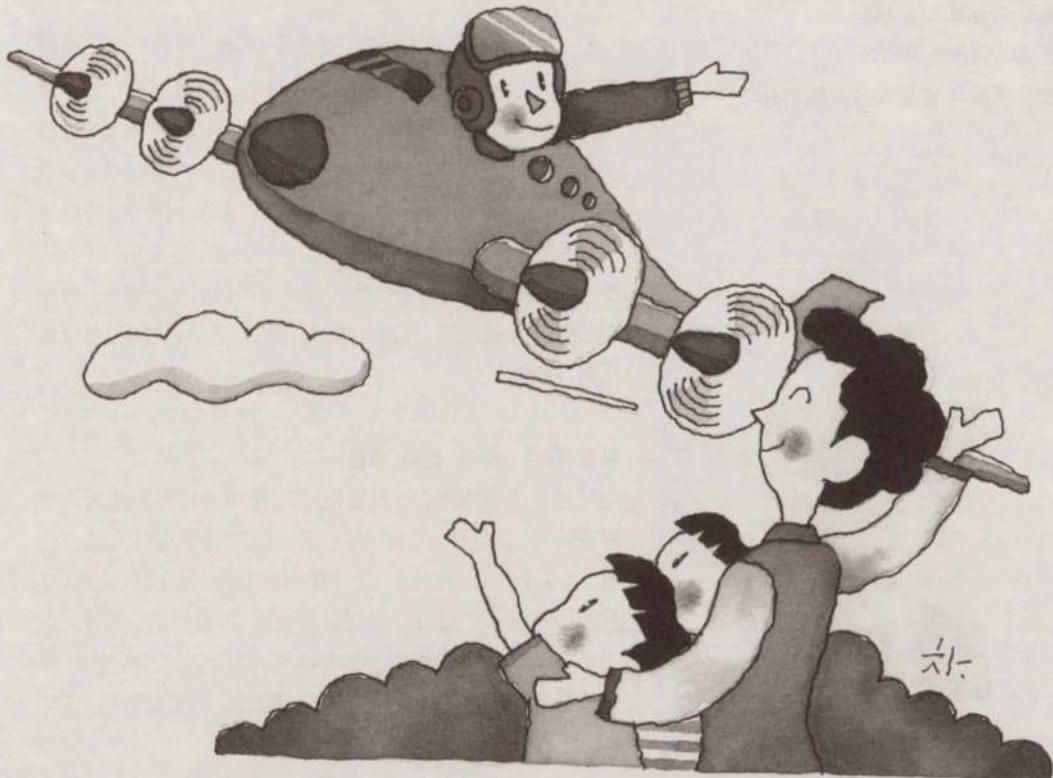
아이들 아빠는 오히려 내가 걱정되는 모양이다. "3달 동안 나 나가 있으면 어떻게 지낼래?" 라고 묻는 얼굴이 꼭 물가에 어린애를 내놓는 딱 그 표정이었다. 난 4년 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낸 경험 때문인지, 남편이 요 근래 며칠씩 집을 비우고 해외비행을 자주 갔던 탓인지 아직까

지는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어쩌면 석달이라는 시간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탓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들과 부대끼다 보면 하루도 금세 가고, 그렇게 일주일이고 한달이 가고 석달도 금세 지나가겠거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떨어져 지낼 때도 남편이 몇 주, 몇 달 동안 올라오지 못해도 아이들과 잘 참고 지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자만에 빠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20여 시간을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먼 타국이 아니라, 3시간의 시차가 있는 낯선 타국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최면이라도 걸고 지낸다면 괜찮지 않을까 우스운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씩씩하고 의연하게 잘 지낼 자신이 있다. 물론 막상 겪다 보면 자신감이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이들과 아빠가 서로 보지 못하는 석달을 잘 이겨

내 줄까 하는 노파심이다. 요 근래 해외비행이 잦으면서 해만 지면, “오늘 아빠 안 오세요?”라고 묻는 쌍둥이들과 유독 아빠를 좋아해서 어떤 때는 처량하게 들릴 만큼 아빠를 불러대는 막내까지, 아이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아빠 없이 잘 견뎌줄까 그것이 염려스럽다. 아이들 마음이 그럴진대,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은 또 오죽할까. 그래도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다. “석달 동안 맡은 임무 잘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도 아빠가 열심히 지낸 만큼 더 예쁘고 더 씩씩하고 더 착하게 잘 자라 있을 거야.”라고.

그리고 또 말해주고 싶다. “아프지 말고 식사 거르지 말고, 무엇보다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 일년도 지나고 보면 별 것 아닌데 석달이면 일년의 반도 안되잖아. 지금처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사랑하는 나의 남편, 대한민국 공군 대위 유재익 파이팅! 🇦🇷



鵬程萬里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

제17전투비행단 대령 이 상 길

우리의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서
사랑해도 오히려 부족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하늘로 비상하는
젊은 보라매들의 앞길에
무한한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고3 여름 방학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空士' 진학을 결심한 이후, '조국, 충성, 하늘, 비행...' 이런 용어들과 함께 생활해 온 지 벌써 28년!

어려움과 좌절, 보람과 기쁨이 어우러진 지난 시간들이었지만, 적어도 전투 조종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내 스스로 자부한다. 개인적으로, 초급장교시절부터 그러한 자부심을 뒤에서 받쳐줬던 문구가 바로 봉정만리(鵬程萬里)라는 고사성어이다.

사실 이 말은 햇병아리 조종사 시절, 팬텀 전투 비행대에 배속되자마자 선배 조종사들로부터 자주 들어오던 정신훈화 대상 1호로서, 장자에 나오는 전설 속의 새인 봉(날갯짓에 부딪치는 물의 길이가 삼천리요, 한번 날면 만리를 날아간다는 새)의 만리 여정을 나타낸 것으로 한글사전에는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 또는 '전도가 양양한 장래'로 해석되기도 한다. 현재 이 문구는 액자로 만들어져 이 곳 17전투비행단 비행대에 걸려 있다.

하늘 속의 나, 내 안의 하늘

사전적 해석이야 어찌됐든, 그 당시 나는 휴게실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왕 초보 조종사였지만 '한번 날갯짓으로 만리를 날아갈 수 있는 원대한 꿈과 기상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교관들의 지시(?)로 인해, 스스로 중국대륙과 태평양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큰 꿈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던 생각

자신의 꿈을 하늘에 불살랐던 수많은 선배 조종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봉정만리의 각오로 우리가 가야 할
 '멀고도 먼 길'을 위해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 아래
 각자의 조종간을 더욱 굳게 잡아야 한다.

이 난다.

그 뒤로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우리의 젊은 조종사들에게 봉정만리의 각오와 자세로 비행생활에 임할 것을 바라는 위치에 서고 보니 더욱 감회가 남다른 것 같다.

사실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시골출신이라 비행을 한다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고, 남들처럼 조종사가 되기 위해 대단한 소명 의식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하늘은 엄연히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의 영공을 지킨다는 자부심만으로도 내 가슴속이 항상 가득 차 있었음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처음 F-4E 후방석에 보임된 후 유난히 비행멀미가 심해 늘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행을 했고, 전투기동 중에는 온 몸의 혈관이 조여드는 압박감과 BLACK OUT 현상(비행 중 과도한 G-Force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 이를 악물었던 기억도 있지만, 그래도 비행 후 흐르는 땀방울과 깊게 패인 마스크 자국을 보면서 무엇인가 이루어다는 성취감을 느꼈고, 바로 그러한 땀과 노력이 우리 조국영공 수호의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비행생활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 곳 일선 비행전대장에 보임 된 후에는, 아내는 물론 늦둥이 어린 딸과 아들에게 '아빠가 직접 비행을 한다'는 점을 일부러 자랑(?)삼아 내세우기까지 했으니 아직도 비행에 대한 사랑과 설렘이 얼마나 큰 지는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九萬里 長天의 큰 뜻

그러나 역시 인간적인 나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불의의 사고로 내 동기생 또는 선후배가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 모든 비행기를 볼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맡겨 놓은 채 온통 담으로 얼룩져있을 후배 조종사들 생각에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꿈을 하늘에 불살랐던 수많은 선배 조종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봉정만리의 각오로 우리가 가야 할 '멀고도 먼 길', 즉 조종사로서의 원대한 포부는 물론 조국을 위한 우리의 사명과 임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 아래 각자의 조종간을 더욱 굳게 잡아야 될 줄 안다.

중국의 제해(薺譜)라는 책에는 봉새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한번 날아오르는 높이가 구만리! 그렇게 여섯 달을 날고 난 다음에야 겨우 설 자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선배 조종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조종사들이 언제나 그러한 정신과 기백으로 저 높고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의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서 사랑해도 오히려 부족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하늘로 비상하는 젊은 보라매들의 앞길에 무한한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

〈현재 전투 조종사들의 시간당 평균 비행거리는 약 2,000여 리! 5회 비행이면, 만여 리를 날아가니 봉정만리의 꿈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들 긴장해라! 너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
혹할 거다. 그리고 잊지 마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공기 사고는 계속해서 연쇄폭발이 일어난다.
혹시나 다른 색의 불꽃이나 터지는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 바로 옆드려라.”
“다시 한번 말한다. 긴장해라. 우리 군인이다.”
“예!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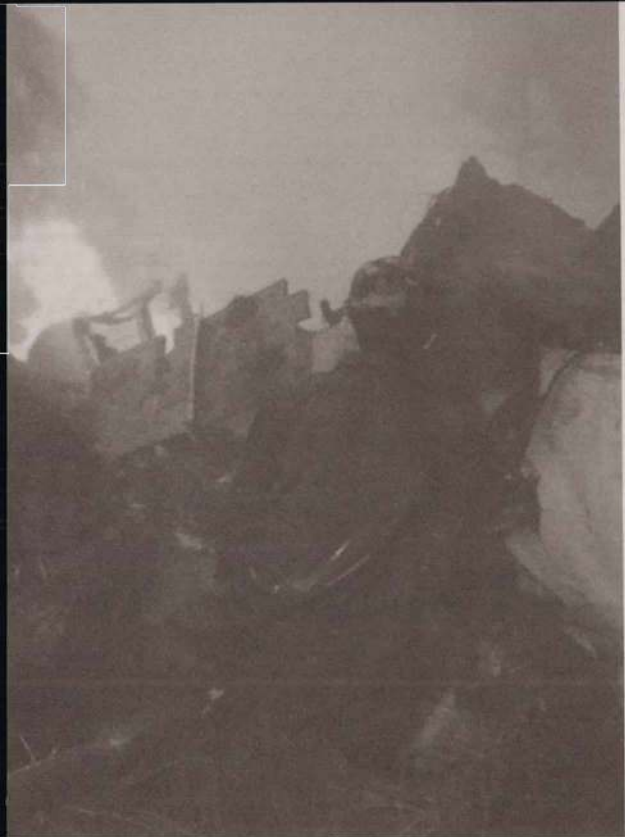
우리는 공군, 진정한 군인이다! 중국 민항기 사고현장에 대한 짧은 기록

제5전술공수비행단 중위 김 재 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당일. 나는 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초조해하는 병사들을 긴장시켰다. 나 또한 항공기 사고를 접해본 적이 없는 터라 사실은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도로는 수많은 구조차량으로 가득했으며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항공기 사고로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기라도 하듯 하늘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비에 젖은 가파른 산을 오르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오르기도 힘든 산을 무거운 구조장비와 함께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오르는 병사들을 보고 내 몸이 힘들다는 생각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부상자와 시퍼렇게 변해있는 시신, 절반밖에 남지 않은 사체가 들것에 의해 내려왔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실제상황을 직접 목격한 병사들은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힘을 내었고 마침내 참혹한 현장에 도착하였다.

사고현장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최악이었고 자욱한 안개와 타오르는 연기로 시야의 확보가 어려웠으며 불에 타는 시체 냄새와 유독가스로 화재진압을 위한 접근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현장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우린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었고 먼저 생존자 수색 후 가장 참혹했던 동체부분으로 갔다. 부서진 항공기 잔해와 나무들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에서 화재진압과 사체수습작업



을 긴박하게 전개하였다.

야삽을 들고 있던 우리에게 항공유가 타오르는 불길은 진화하기에 역부족이었지만 병사들은 몸을 아끼지 않았다. 몇 미터라고 할 것 없이 바로 발 앞에 솟아오르는 불길을 두고 연쇄폭발의 위험 속에서 진화에 혼신을 다하며 시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숯덩이가 된 사체조각을 수습했다. 사체를 덮을 시트가 없자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고 있던 우의와 야전상의 등을 벗어 사체가 온전하게 운구될 수 있도록 애쓰기도 하였다.

얼마나 고열 속에 있었는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유골, 여기저기 흩어져 일부분만 남아있는 신체부위들. 보지 않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고, 항공기 잔해에 부딪혀 다치는 병사, 불타는 장애물을 옮기다 불덩어리를 뒤집어 쓴 병사, 비탈길 진흙으로 쏟아진 사체조각을 주우려다 우의가 녹아 화상을 입던 병사.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우려했던 바와 달리 병사들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견디며 지휘에 따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나갔다.

우리 공군과 함께 육군, 119소방대, 경찰 등이 합동으로 지휘부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현장통제를 하기에는 시간상 역부족이었지만, 병사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현장 지휘관의 통제를 잘 따라주었고 구조작업에 앞장섰다.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저 청년들. 아무리 '신세대 군인', 'N세대 군인', '요즘 애들은 왜 저리 빠졌어?' 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만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는 그들의 강인함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국민은 우리를 믿는다. 우리는 공군이다! ⚡

리더십 이야기

공군사관학교 중령 정 현 필

한국에 다녀간 바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리더의 유형을 바꾸는 데 7년이 걸린다고 했다. 즉, 사람의 자질요소와 습관을 바꾸는 데 그만큼 긴 세월이 걸린다는 말이다.

하나의 조직에서 부서장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 구성원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가 단기적인 목표달성에 유리하고 조직의 성과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상관은 점차 독선적인 형태로 바뀌고, 구성원은 추종적인 형태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몇 년 후에 내가 어떤 직급에 일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에 맞는 자질과 습관을 갖추도록 노력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개인의 장점과 개성,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구성원의 '셀프 리더십'과 구성원에게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슈퍼 리더십'이 요구된다.

즉, 리더와 구성원의 통합과 함께 조직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상생의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머리가 좋고 행동이 빠른 사람은 참모형이 어울리고, 머리가 좋고 행동이 느린 사람은 지휘관형이 어울리고,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빠른 사람은 업무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하므로 퇴출 대상이며,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느린 사람은 책임이 없는 단순 직위로 보내야할 대상이다.'

그러나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높은 직급의 사람이 털끝만한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질서를 흐트러놓는 데 있다. 그런 사람은 먼저 곁손을 배우고 세상의 법도와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 중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사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요, 생각하는 사람이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의식은 어느 형에 어울리는지 생각해 볼 때이다. ⊕

LEADERSHIP

조 지 훈(趙芝薰)

1920년 경북 영양 출생.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청록파 시인, 수필가, 한국학 연구가. 민속학과 민족운동사에 공헌. 조지훈은 소월과 영랑에서 비롯하여 서정주와 유치환을 거쳐 청록파에 이르는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함으로써 20세기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한국문학사에 연속성을 부여해준 큰 시인이다. 《청록집》 《풀잎단장》 《조지훈시선》 《역사 앞에서》 《여운》 등 그가 남긴 시집들은 모두 민족어의 보석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승무〉〈낙화〉〈고사〉와 같은 시들은 지금도 널리 읊어지고 있는 명작들이다. 전통적인 운율과 선(禪)의 미학을 매우 현대적인 방법으로 결합한 것이 조지훈 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육군중령 김풍익(金豊益)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소련제 T-34전차를 앞세우고 38선을 돌파, 포천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후방지역의 전 예비사단을 전선에 투입하고, 이어서 포병학교 제2교도대대장 김풍익 소령에게 제2사단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월 26일, 의정부 북방 4킬로미터 지점에 포진한 김풍익 소령은 침공해오는 적 전차를 막을 방도가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대포를 끌어내어 제2포대 6포반원과 함께 도로변에 배치하고 직접 조준사격하여 적 선두전차를 파괴하였다. 이어 제2탄을 발사하려는 순간 적의 직격탄에 부하장병과 함께 장렬히 산화하였다. 사후 1계급 특진과 충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민 종 식(閔宗植)

1861년 경기도 여주 출생. 본관 여흥(驪興). 자 윤조(允朝). 호는 퇴초자(退樵子). 1882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으나, 1895년 을미사변 등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정산을 중심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격분하여 흥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이듬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에 패하고 공주에 은신 중 체포되었다. 1907년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법무대신 이하영의 주선으로 감형, 진도에 귀양갔다가 특사로 석방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월드컵 대비 항공보안 대폭 강화

건설교통부는 월드컵을 앞둔 지난 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운송, 객실, 운항, 정비, 기내식 전 부문에 걸친 보안지침을 하달하고 기내에서 제공되는 주류 서비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김포공항 등 16개 국내공항에 보안검색장비 등 탐지장비 39종 6,925점의 설치를 완료하고 폭발물탐지 및 처리요원을 현재 18명에서 33명으로 확대, 개최도시 인근 공항에 배치했다. 항공사와 경항공기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각 공항의 주기 항공기 주변, 이착륙 시설에 점검반과 경비원을 투입하여 월드컵을 대비한 항공안전을 대폭 강화하였다.

T-50, 6월 첫 비행

한국항공산업과 록히드 마틴사가 공동개발한 T-50 골든 이글이 6월 중 첫 비행을 실시한다. 한국 공군을 위해 개발된 T-50 골든 이글은 초음속 비행훈련과 경공격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처음부터 F-22 등 차세대 전투기 조종훈련에 맞게끔 설계됐다. T-50 골든 이글은 공군의 시험비행을 거쳐, 오는 2003년 양산체제에 들어간 뒤 2005년부터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항공계

소식

대한항공, 미군 UH-60 헬기 창정비 수주

대한항공은 주한 미 육군의 주력 헬기인 UH-60의 창정비(완전 분해정비)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배선 개조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향후 3년 동안에 걸쳐 8대(추가 Option 8대)를 개조하게 될 이번 사업에서는 UH-60헬기 창정비 및 국내 협력업체에서 자체 제작한 배선 장착이 이루어진다. 품질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 육군이 이 분야의 개조사업을 해외에 발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주한 미 육군이 국내에 배치하고 있는 100여대의 UH-60헬기에 대한 추가 작업물량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계

소식

지방공항 국제선 개설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방공항의 국제선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업체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홍콩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이달 초까지 김해·제주·대구·광주·양양·청주 등 국내 6개 지방공항에서 중국과 일본 등 해외 9개 도시를 잇는 12개 항로가 신설 또는 증설됐다. 또 지난 달 광주~상하이 노선이 신설된 것을 비롯 대구~베이징, 대구~나리타, 대구~센양, 김해~홍콩, 청주~센양 등 6개 노선이 오는 7월말까지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퀴즈로! 퍼즐로!

①②③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6월 17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을 추천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달의 문제

1				2			3
②			4		5		
6		7	③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①						
							20

지난호 정답/아리랑

	펠	레		주	장				
피		알		심		루		홀	
파	르	마				이	탈	리	아
		드	리	블		코		건	
차	두	리 ^②		랑 ^③		스			
봄		드		코	스	타	리	카	
	마				위			매	
	라		골	키	퍼			룬	
파	도						경		비
	나	이	지	리	아 ^①		고	정	운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사서함 308-7 조정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72-6 김정현
제30방공관제단 계획처 병장 신동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58-7 김선련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상병 구인회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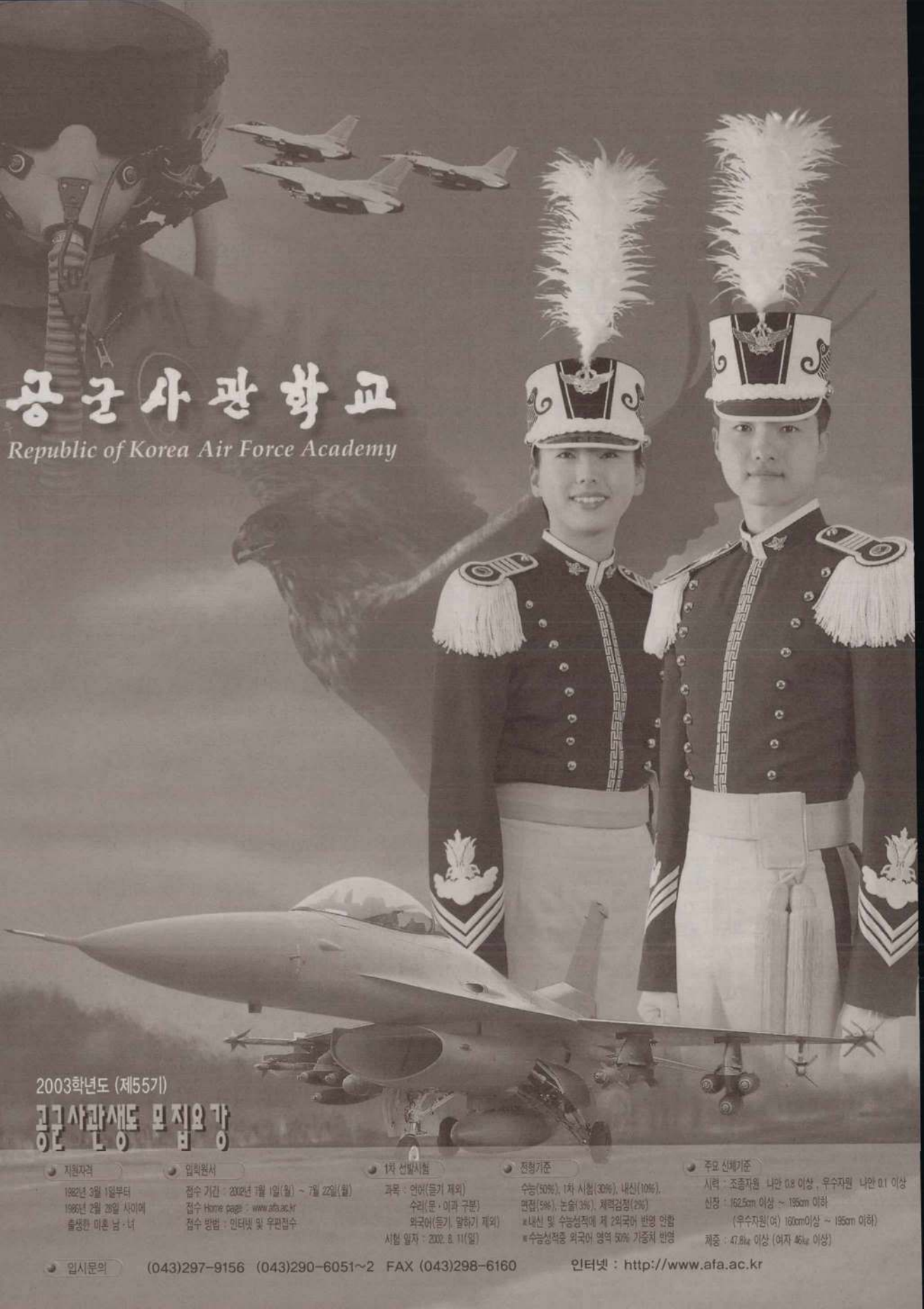
-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
-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 축구대표팀의 주전 골키퍼. 콩지머리
- 2002 한·일 월드컵 공인구
-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주장. '스파이스 보이' 라는 별명이 생겼지요.
-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플레이메이커. 세레소 오사카 소속
- 축구에서 3골을 넣으면...
- 우리 축구대표팀만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숨겨두고 혼자만 쓰는 좋은 방법. 성공의 ○○
- 머리로 공을 다루는 기술(?)
- 박수 다섯 번. 두손을 짝 펴고, 우리나라 대표 응원단
- 골대의 윗부분. 여기에 공을 맞힌 팀이 진다고 하지요.
- 우리나라 축구가 전 경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victory!

세로열쇠

- 만약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우승 ○○○를 받겠지요.
- 국내 축구경기를 보면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샤샤, 데니스, 산드로
- 파라과이의 골 넣는 골키퍼
-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야전사령관
- 리거. 미드필더. 노장은 살아있다. 일본에서 자서전을 낸다고 합니다.
- 대한축구협회 회장. FIFA 부회장
- 문제를 풀어서 결말을 지음
- 축구경기 보러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요. 요즘은 ○○발급이 쉽대요.
-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의 공격수. 별명 샤프
- 브라질 축구 = ○○리듬의 축구. 설운도 아저씨를 생각합시다.
- 모든 일에 있어 ○○○를 잘 해야 합니다. 물론, 축구도 마찬가지

공군사관학교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2003학년도 (제55기)

공군사관학교도 모집요강
이 단 이 번 이

지원자격

1982년 3월 1일부터
1985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미혼 남·녀

입학원서

접수 기간 : 2002년 7월 1일(월) ~ 7월 22일(월)
접수 Home page : www.afa.ac.kr
접수 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1차 선발시험

과목 : 언어(듣기 제외)
수리(문·이과 구분)
외국어(듣기, 말하기 제외)
시험 일자 : 2002. 8. 11(일)

전형기준

수능(50%), 1차 시험(30%), 내신(10%),
면접(5%), 논술(3%), 체력검정(2%)
* 내신 및 수능성적에 제 2외국어 반영 연합
* 수능성적중 외국어 영역 50% 가중치 반영

주요 신체기준

시력 : 조종자원 나안 0.8 이상, 우수자원 나안 0.1 이상
신장 : 162.5cm 이상 ~ 195cm 이하
(우수자원(여) 160cm 이상 ~ 195cm 이하)
체중 : 47.8kg 이상 (여자 46kg 이상)

입시문의

(043)297-9156 (043)290-6051~2 FAX (043)298-6160

인터넷 : <http://www.afa.ac.kr>

문화가 소식

한국 근대회화 100선(1900~1960)展

국립현대미술관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동시에 한국 근대회화의 예술성과 미술사적 의미를 전세계에 알리고자 '한국 근대회화 100선(1900~1960)'展을 개최한다. 근대회화의 대표작 100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교과서 등을 통해 친숙한 우리 회화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흔히 않은 기획으로 평가된다. 출품작들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원, 근대회화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일반인들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 등을 참고로 선정되었다. 6월 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



일본미술명품전

국립중앙박물관은 2002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양국간 친선과 상호이해를 도모하고자 오는 7월 14일까지 일본 문화청·국제교류기금 공동 주최로 「일본미술명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출품되는 유물들은 일본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일본 미술을 대표하는 국보급문화재 298점으로, 회화·조각·공예품·서적·고고자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엄선된 것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양국문화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라냐&게오르규 듀오 콘서트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의 뒤를 잇는 제4의 테너로 젊은 시절의 파바로티를 연상케 하는 고음과 서정적인 목소리, 매력적인 옹모로 세계 오페라 팬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최고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거장 게오르그 솔티에게 발탁되어 뛰어난 미모와 우아한 음색으로 단숨에 세계 오페라 무대의 정상에 등극한 신데렐라 안젤라 게오르규가 오는 6월 12일(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첫 공연을 가진다. 지난 '96년 결혼식을 올리며 세계 음악계의 스타 커플로 탄생한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베르디, 푸치니 등 주옥같은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로 초여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콜린파월 리더십/오런 해러리 지음/한근태 옮김 /284쪽/좋은책만들기

이 책은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더 눈부신 성공을 이뤄온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특유의 지혜와 행동철학, 그리고 현장 경험에 기초한 리더십을 풍부한 사례들과 함께 들려주면서, 파월과 같은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파월과 같은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혹은 이미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변화된 리더십을 요구하는 부하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실천적인 지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